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刊

9

2010년 9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洪元基 인쇄인 이영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E-mail : kjc1405@hanmail.net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02)732-4797
02)732-4798
02)2273-4253
Fax 02)730-1270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94호

‘利敵’방임은 公權力의 직무유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나라의 뿌리를 잡아먹는 역모(逆謀)의 패거리가 큰 소리 친다.

패거리는 사방눈치 살피는 따위의 소심한 야행성(夜行性)을 벗어던진지 오래다. 등등한 기세는 안하무인, 내놓고 반역의 깃발을 휘젓고 있다. 남반도(南半島)에서 활개치는 정권 흔들기와 북한 편들기 세력의 준동은 다반사가 됐다. 그 핵심체인 소위 6·15남북공동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선고했다.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적집단의 반발이 가관(可觀)이다. ‘이명박 정권의 폭거’라는 전제를 깔고 “다 싸잡아도 한줌도 안되는 친미 사대 매국세력의 반역사적 파소적 만행은 지금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잔재들을 모조리 청산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나섰다.

말씨도 평양의 가락을 빼다박았지만 딱히 도둑이 몽둥이 들고 연단에 올라

호통치는 꼴이 아닌가.

실천연대는 지난날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발기하여 몸집을 키웠다. 적잖은 국고지원금(국민세금)을 받고 움직였다. 그들의 행각은 모든 역량을 반미(反美)와 반한중북(反韓從北) 노선에 쏟아 붓는 것으로 일관했다.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관계자들이 주축인

특별기고



정재호

· 본회 회우·칼럼니스트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좋은 통일운동을 내걸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맥아더 동상 철거,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시위를 주도해 왔다.

하나같이 북쪽의 입맛에 맞춘 국관들이다. 북한의 선군정치 김정일 찬양 따위에 매달리는 등 영락없는 북쪽의 분신 나팔수다.

이렇듯 거침없는

이다.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인 해산명령 장치가 없다는 게 수수방관의 변(辯)이다. 백주대로에서 길을 묻는 어색한 시늉이다. 3·26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더 뜨거워진 이념 갈등은 끝이 안 보인다. 여야 정치권의 시국 인식차도 빗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모습이다.

사사건건 부딪치고 혈투는 것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65년전 좌우대결로 두 동강난 해방공간을 방불케 한다. 사상 초유, 531만표 차로 등극한 대통령이다. 우파신념보다 중도에 경도된 MB의 이념 불확실성이 문제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남북대치의 긴장수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상처럼 되풀이되는 정치판의 안보·이념 논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는 최근 여론 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관심 집중이 매우 제한적이며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안보 불감증이 이념 불감증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다.

‘실천연대’ 등 북한 편들기 수수방관 이명박정권 ‘이념 불확실성’ 이 문제

실천연대는 34개로 조사된 진보 좌파 단체를 망라한 구심적 조직이다. 허울

상황조작에 대처하는 정부의 느슨한 태도는 팔짱 끼고 달 구경하듯 태평 세월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 참언론인을 찾습니다 2010 대한언론상 공모

접수마감 9월 20일... 시상일자 추후통보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0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까지 보도, 논평 및 언론 학술연구 분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회보에 발표합니다.

응모 요령

- 분 야 : 보도 논평, 언론 학술 연구
- 대 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 (명함판), 공적자료 1부 (단체) 공적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0년 9월 20일 오후 5시

- 시상일 : 추후 통보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 732-4797~8,
(02) 2001-7621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공적기록 양식

〈 A-4 용지(12 포인트) 2페이지 이내로 요약 기재〉 세부 공적내용
※ A-4 용지(12 포인트) 5 페이지 이내로 요약 기재 2010 대한언론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구분 (O표) 개인, 단체

추천서 양식

1. 수상 후보자
추천부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단체명
대표자명
소 속
주 소
(이메일)
전 화

공적기록·추천서 양식

휴대폰

2. 주요 공적 요지 (5줄 이내로 작성)
※ 첨부 : 세부 공적내용(소정서식) 1부, 2010년도 ‘대한언론상’ 수상후보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10년 8월 일

추천인
성 명
(서명)
직업
(소속)
주 소
전 화
(핸드폰)

‘21세기형’ 교육경쟁력 확보 시급

20세기 역사를 지배한 근대국가조직의 3대 근간은 군대·관료·학교이다. 그래서 이 세 조직은 구성과 운영의 원칙이 같다. 이러한 근대국가의 힘은 근대산업으로부터 발생한다. 산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원료의 조달과 시장의 확보를 위한 국제확장경쟁시대, 곧 19~20세기 제국주의의 역사를 만들었다. 20세기까지의 학교란 군대와 관료, 그리고 산업역군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국민 예비 훈련기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발제도, 훈련·교육·경쟁원칙, 사회적 보상체제 등을 국가가 일원적 질서 위에서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근대국가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대 역사의 흐름에 뒤처졌던 결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시대를 경험 했고, 20세기 중반부터 근대국가를 향한 경쟁에 몰두하여 전란을 치르면서도 후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문맹퇴치 성공속도, 취학을 증가속도, 경제성장속도 최선두를 성취해왔다. 20세기형 국가경쟁력 증진에서 교육이 결정적 기여를 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가가 수립하고 추진한 교육전략이나 정책의 결과이었던가 하는 데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투입된 공교육비 규모에 비해 배출된 인적 자원의 생산성은 턱없이 높게 나타나는 기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학업성취 경쟁열은 점점 더 상승하는 기형적역동성이 한국교육 현대사의 특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교육의 성과 속에는 공교육의 부실 및 결손부분을 보완해 온 사교육의 기여가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함으로써만 이 의문은 풀릴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교육 만의 특별한 역동성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20세기 후반에 한국의 선진국대열진입이라는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앞으로의 교육 위기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더 이상 20세기 제국주의의 특징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지속될 수 없겠다는 조짐들이 인류역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예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패

특별기고



김인회

• 전 연세대학교수
• 한국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이사장

대기업 삼성이 변호사 한명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5백년을 지켜온 송례문이 원한을 품은 노인 한명에 의해 불타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도래 했다. 온갖 부분에서 20세기의 특징들은 급속도로 의미가 변하고 있다.

21세기형 경쟁력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20세기형 경쟁력과 다르다. 첫째, 집단적, 기계적, 획일적 질서 대신에 개인적, 인간적, 감성적, 개성적 다양성의 질서

들끼리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이지만, 교육의 경쟁력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좌파나 우파를 불문하고 하나의 이념, 가치관, 제도를 학교교육현장에다 획일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권력적 발상 자체가 20세기적이다. 국가도 학교도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20세기적 교육신화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집요한 억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무대로 삼는 사교육부문의 다양한 역동적 확산과 변화조짐으로 미루어 이미 우리의 교육문화는 총체적 변신과정에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천년 이상 사교육경쟁이라는 문화적 생명력과 역동성을 축적해온 나라이다. 우리 민족의 자산인 그 힘을 선용하는 길은 공교육이 사교육의 발목을 잡는 대신에 사교육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21세기적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끝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변화를 초월하는 교육의 이상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인간양성이다. 그런 인간의 덕목과 조건을 설명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왔지만 공정과 정직이 가장 보편적인 덕목일 것 같다. 한마디로 도덕적 인간의 양성이야말로 교육의 보편적 이상인 것이다. 이 점은 21세기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도덕성교육에서는 불변의 원칙이 있다. 도덕성에 있어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교육에 못지않게 삶의 현장과 환경이 갖는 교육적 또는 반교육적 영향력이 무서운 것이다. 우리사회 각 분야 어른들만큼 21기의 우리 아이들도 도덕적 인간성을 형성해 갈 것이다. [필자]

左右 막론 하나의 이념 적용은 안돼 私교육 능가하는 公교육 수준 필요

되, 월남에서 미국의 패퇴 사실을 들 수 있다.

초강대국들이 초약소국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패배한 역사적 현실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 한 채 여전히 20세기강대국 중심의 약육강식 논리로 국제관계를 밀어붙이던 미국이 21세기 벽두(2001)에 9·11사태를 맞았다. 국가도 아닌 테러조직에게 유일 초강대국이 당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하층은 존재들과도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인류가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역사의 신호라고 나는 해석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감각과 의식, 가치체계, 판단기준 등이 이미 바뀐 사실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서 세계적

를 토대로 하고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21세기형 개인 또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둘째, 20세기에서는 원료·부존자원·생산시설·훈련된 인력·새로운 기술·지식·조직 등의 집중과 축적 정도가 경쟁력의 관건이었지만 21세기에서는 그 모든 것의 유통·확산·폐기와 재생의 속도가 경쟁력의 기준이다. 과거로부터 얻은 이(利)점을 재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가치 선택에서의 유연성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셋째, 20세기까지는 동질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동질적 개인들 또는 집단들끼리 유유상종함으로써 경쟁력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서는 이질적 가치들 간의 공존과 융화능력이 바로 경쟁력의 대 전제이다. 서로 다른 것

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서류상자에서 취침중이다. 재적의석의 60%를 점하는 거대여당의 낙장과 무성의도 꼴불견이지만 민주당이 북한 문제를 만나면 오금을 못 펴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도 역겨운 기관의 극치다. 이 나라 제일야당, 그 정체성의 음(陰)과 양(陽)의 각진 모서리를 제대로 투시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민주당에 쏠리는 애정만큼이나 의문의 농도도 정비례 한다.

북한문제가 세계무대에 등장할 때면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 부끄럽다. 2010년 여름 찜뽕 더위속, 65주년 광복절을 맞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주소다. [필자]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일종의 식상(食傷)증후군이다. 좌파정권 10년에 폭넓게 퍼진 면역성이 끈끈한 항체(抗體)를 구축한 탓이다.

이런 틈새를 해집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빌붙은 이적단체의 활동이 고무되고 있다는 현실진단이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취임 선서에서 국가 보위를 으뜸으로 다짐한다. 모든 것을 건 엄숙한 약속이다.

‘보위의 완성’은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으로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일체의 소인(素因)을 철저히 제거하는 데서 출발한다. 제도상으로는 더 이상 물어볼 곳이 없는 최고 법정에서 판결

된 이적 단체가 버젓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는 것이 백번 옳다.

방임은 주목받기를 목망하는 또 다른 패거리에게 명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게 뻔하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는 처벌받도록 형법(122조)은 못박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총체(總體)다. 포괄적 개념이 법률적 해석의 토대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적단체의 활동을 나몰라라 팽개친다면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국가보위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법률상의 귀책(歸責) 사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대통령

은 재임중 형사상의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입게 될 ‘상처’는 만만찮을 것이다. 후폭풍도 감당하기 벅찰 것이다.

정치권의 태만은 어떤가. 기관의 단계를 뛰어넘어 수치심마저 안겨준다. 서방 선진국 의회가 앞다투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반해 우리 국회는 야당의 반대로 ‘반쪽자리’ 결의에 멈추었다는 사실은 한국정치의 한계로 기록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거부로 상정조차 못했다.

5년여 허송세월 끝에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발의하여 외교통상위

‘친서민 정책’ 포퓰리즘 막아야 한다

이명박(MB)대통령 정부가 임기 5년의 절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 MB정부의 총체적 국정 평가를 내리기엔 시기상조다. 중간평가를 한다면 지표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거시경제를 빼면 한 마디로 잘한다거나 못한다고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경제 부문에서도 일자리, 특히 청년 취업이 늘어나지 못하고 수출이 호조인데 비해 내수는 상당 부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아직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에서는 옳은 일을 하려는 것 같은데 사사건건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국정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MB정부의 잘잘못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권 출범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 부자 감세 반대, 4대강 개발 반대, 세종시 건설 수정안 반대, 각종 교육 조치 반대, 천안함 폭침이 북한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한 끈질긴 부정과 의문 제기 등등 정부에서 내놓는 일마다 반대하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론분열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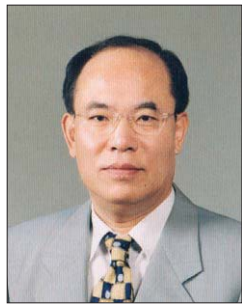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정부 여당의 소통과 리더십 부재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집권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反) MB 집단의 일방적 반대와 흠집내기 공세로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노림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양자 모두의 원인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MB정부가 친서민과 기업상생 정책을 표방하자 이를 둘러싸고도 시각이 엇갈려 말들이 많다. 이들 정책이 자유시장주의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대체로 보수적 이념의 시장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 쪽 재계와 보수 언론, 시장경제론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이슈에 대해선 보수쪽의 반발이 더 크게 특징이다. 한편으로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단순한 인기 영합술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세력이 있다. 진보 좌파 이념 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은 이 정권 출범 초기 내걸었던 기업 프렌들리를 접고 중도 실용과 친서민을 외친다는 건 이념을 보수에서 진

時 論



최 희 조

• 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를 주어야 하며 과도한 간섭을 막아 기업활동 위축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는 매우 강하게 개입해야 하나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 좌파적 시각에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정책 자체를 바꾸어 한국 경제의

그렇고 서민대책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기는 게 옳다. 정부의 역할은 거기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온 것처럼 강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는 강자의 양식과 도덕심에만 호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법적 장치와 함께 정부의 철저하고도 부단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감시 감독체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부터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민층, 경쟁에서 뒤지는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친서민 정책에 어긋난다고 해서 시장원리를 외면하거나 훼손하면 그건 결국 나쁜 포퓰리즘이 된다. 노무현정부 때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이 세금은 조세체계를 뒤흔드는 좌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불합리한 세금이란 지적을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부자들로부터 가능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더라도 합리성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 MB 정부는 이 세금을 재산세로 흡수,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친서민 정책을 내걸면서 종부세 폐지를 주저하고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장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국부 창출의 원천이 돼야 하며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정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2년 6개월 이후 MB 정부의 친서민, 기업상생 정책이 상이한 시각과 처방을 내놓았던 어느 쪽에서도 크게 빛나가지 않고 그 정도면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국문]

자유시장 원리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는 불공정거래등 철저한 감시를

보로 바꾼 것이라며 MB의 정체성까지 들먹인다. 애초부터 보수를 표방하거나 시장주의를 옹호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다. 이 정부가 노무현정부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버렸다고도 한다. 그를 지지한 모든 시장주의자들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진보 좌파 계열은 친서민 정책은 환영할 만하나 진정성이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 때마다 탈출구로 친서민 카드를 내놓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폄하한다.

시각이 다른 만큼 각각의 처방과 주문도 다르다. 시장주의자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 일자리가 바로 서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 최대한 자유

채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은 일시적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중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형 슈퍼(SSM)에 대한 법적 규제, 부자 감세 환원, 보편적 복지예산 확충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MB정부의 지지 기반을 고려할 때 이 정부가 과연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한다.

MB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친서민과 기업상생을 둘러싼 이러한 상이한 시각과 처방을 모를 리 없다. 문제는 친서민과 기업상생이 시장원리만으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에 대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데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도

2011년도 회우 수첩 발간

대한언론인회는 2011년도 회원 수첩을 발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 2010. 9월 30일 까지

절취선-----절취선-----절취선

성명 : (한글)	(한 자)
생년월일 :	주 소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약력 <전직 3가지 이내>	이 메일 또는 홈페이지 주소

인물 사진(교체 희망자에 한함)



겨우, 일 년에 이틀

겨우, 일 년에 이틀로 세상이 바뀔까 싶다가도
우리 아들들의 희망을 키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하니
자꾸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겨우, 일 년에 이틀로 나라 살림이 달라질까 싶다가도
우리 딸들의 가게가 무럭무럭 커질 수 있다하니
자꾸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겨우, 일 년에 이틀로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싶다가도
어머니 아버지들의 노후가 더 편안할 수 있다하니
자꾸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나
세계인의 행복이라는 +α를 만들 바로 그 11월의 이틀-
자꾸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모두에게 +α 되는 세상을 만드는
G20 정상회의의 서울개최를 환영합니다



2010년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환영합니다



‘통일세’ 理想과 現實 조화가 관건

냉혹한 분단의 현실에서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이며 전국민의 여망이다.

이 민족적 대 과업을 실현할 준비작업을 하자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것은 적어도 대의명분론에서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 과연 ‘통일세’를 준비해야 할 만큼 남북 간에 분위기가 성숙되었는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5개월 밖에 안되었고, 그 사태 이후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달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준(準) 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통일세’를 운위하는 것은 국민들 귀에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남쪽의 대통령이 ‘통일세’ 발언을 한 경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 측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북한의 눈치를 살피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확대해석해서 혹시 ‘흡수통일’의 저의가 숨어있다고 오해한다면 도리어 남북 대치국면만 악화 될 뿐,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런 예상은 적중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이 나오자 즉각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리명박이 떠벌린 통일세란 어리석기 그지 없는 망상인 ‘북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불순한 것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저들이 흡모하는 김정일의 사후까지 대비하려는 발상에서 통일세 발상이 나오게 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국내 여론도 통일세 제안에는 찬성보다 불협화음이 더 컸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 까지 찬성과 비판 등으로 나뉘어서 갑론을박 하는 모양세였다.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통일세 같은 문제는 당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사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았다”며 소외감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여권 내에서도 당·정·청 간에 소통의 통로가 막혀있음을 증명한 대목이다. 이래저래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빛이 바랜 느낌이다.

이 문제를 놓고 예상외로 여론이 들끓자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통일세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통일에 대비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치밀한 계산 끝에 만들어진 종합적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일단 통일세의 운만 떼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는 ‘제의용 제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풍겼다는 점이다. 예컨대 통일비용은 얼마가 드는데 그 비용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충

時 論



지용우

- 본보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다음, 완성된 안을 정부가 면밀히 재 검토하고 나서 비로소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느니 만큼 일방통행식으로는 곤란하며 남북한 쌍방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모범답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마련이 최대 결

데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이며,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계층,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통일을 거부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문제는 앞에도 말했듯이 통일비용이 가위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점이다.

얼마전에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작성한 통일자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김정일 사망등) 급격히 붕괴될 경우 오는 2040년까지 무려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500조라는 어마어마한 액수, 상상이 되는가?

이는 우리 국민 1인당(젓먹이 영아나 90세 고령자를 막론하고)5,18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라고 한다.

이보다 통일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긴 하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즉 북한이 점진적인 개방수준을 거친 뒤에 통일로 ‘연착륙’을 시키면 급격한 붕괴 때의 7분의 1 수준(3,220억달러)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 동안 ‘강대강’ 원칙을 계속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부터는 강온(強溫)양면책으로의 전술적 변화가 있어야 시점이 되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 일방적 대북 퍼주기론만 일관했던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조건있는 대북원조, 받은 만큼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는 새로운 남북 외교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4]

李대통령 제안 깊이 있는 검토 했어야 천문학적 비용 구체적 세부계획 필요

당하겠다는 식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사안의 중대성과 문제의 성격상 대통령이 이러한 중대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당·정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일세 처럼 후속조치가 더 복잡한 중대사안은 대통령이 8·15 기념식전 같은 데서 불쑥 말을 꺼내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학계나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통일문제 전반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을 통

림돌이다

통일세는 곧 통일비용이다. 그 액수는 가위 천문학적이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숫자다. 계층별로는 통일 후에 혼란을 염려하는 보수 우파, 북한 동포와 밥그릇을 나눠 먹을 일을 걱정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중산층 등이 그들이다.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과 빈곤층, 좌경세력과 진보성향의 지식층, 그리고 순수 민족주의자들은 통일을 갈망한다. 이중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통일이 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이 보다는 더 못 살겠는가 하는 자학적인 사고가 심리저변에 깔려있다. 그런

9월 건강포럼 11일 개최

이윤수박사 '부부행복론' 강의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와 한국 성과학연구소(소장 이윤수·사진)가 공동으로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위해 열고있는 '9월의 건강포럼'이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서울 명동(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 외환은행 앞)에 있는 '이윤수 조성완 비노기과'에서 열린다.

이번 건강포럼의 주제는 '부부행복론'으로 이윤수 박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달에 열리는 건강포럼은 추석연휴가 실질적으로 17일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한주를 앞당겨 11일에 열기로 했다.

건강포럼은 8월인 지난달에는 폭염

과 휴가관계로 휴강했었다.

강연을 맡은 이윤수 박사는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 위해 2년에 걸쳐 '무료 전립선검사'를 주선했으며 건강포럼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특별상담을 하는등 회원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맡고있다.

이윤수 박사는 현재 이윤수 비노기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이화여대병원과 연세의료원 외래 교수이며 사단법인 한국전립선 관리협회이사, 중구의 사협회장으로 있다.



한편 지난 7월강의때는 건강포럼 이보길 간사가 참석 회원들에게 건강수건과 고급볼펜을 증정했다.

(이보길 편집위원 기)

G-2 세계의 등장과 한국의 진로

중국이 드디어 지난 8월16일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공인됐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액)가 지난 2분기(4~6월) 1조3,369억달러로 같은 기간 1조2,883억달러에 그친 일본을 눌렀다. 지난 78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연간 10%대의 고공성장을 지속해온 끝에 미국뒤에 바짝 붙게 됐다.

출발부터 대립

이제 관심은 언제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GDP)는 2009년 현재 각각 14조달러, 4조9,000억달러로 중국이 미국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연 7~8%씩 성장하는 떠오르는 해라면 미국경제는 연 1~2%에 성장에 그치는 지는 해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이런 성장의 격차라면 중국이 약20년인 2030년에는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전후 70여년간 세계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을 제치고 과연 세계경제의 정상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단순한 경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패자(覇者)가 되는 문제다.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문화등 총체적 국력의 대결이다. 세계를 이끌 리더십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중·미(CHIMERICA)의 G2(양극)체제는 이미 대결이 시작됐다하겠다. 무역, 투자등 경제분야뿐 아니라 군사부면에서 까지 대립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불분명하기 쉽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지난 연초 연설에서 “우리는 넘버 투(제2인자)의 자리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경쟁력을 대폭강화, 경제대국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값을 올려 공정계임을 시키겠다는 뜻도 있다. 미국은 만성적인 대중(對中)무역적자는 위안화의 의도적인 평가절하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버냉키 미연방준비이사회의장은 최근 위안화가 10~30% 평가절하됐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미국의 세계적인 시장개방화정책 덕분인데 미국의 줄기찬 위안화 평가절하요구를 거의 언제나 외면해 왔다. 2005~2008년 사이에 겨우 20%절상했다. 올해 들어서도 강력히 절상을 요구하자 환율조작의 비난을 피하기위해 환율제를 달러당 6.83위안의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다시 환원, 사실상 약간의 인상만 허용했다. 미의회는 여전히 분기탕천, 환율불공정거래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회가 환율불공정국으로 지정, 중국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자존심이 강한 중국정부가 이에 역보복공세, 양국간에 관세전쟁으로 번질 것

이 확실하다고 했다. 경제전쟁의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는 셈이다. 세계경제도 편치 않다.

뜨거운 한반도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최근 서울 방문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안보회의에 참석, “남지나해지역의 영유권분쟁해결은 미국의 국익이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이 지역 분쟁문제에 관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역은 중국, 베트남



이 재 승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세종연구소 이사

중국 GDP 일본 추월 세계2위 급속 부상 美·中 사이 노련한 求同存異 외교 필요

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이 영유권을 주장, 오랫동안 분규에 싸여온 지역이다. 중국이 최근 이지역에 대해 티베트, 대만과 같이 특수관계인 지역에 적용해온 ‘핵심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 다른 주변국들을 불안케 했던 것. 클린턴선언은 이에대한 제동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영향을 미칠 선언이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지역관련국들과 연합전선을 형성, 대응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대중(對中)전략이다. 오바마 독트린이라 하겠다. 미77세대 핵함모 조지 워싱턴호는 이에 앞서 베트남을 방문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했다. 이어서 천안함포격침사건과 관련하여 8월 한국 동해상에서 대규모 한·미합동해상훈련으로 미국의 대한(對韓)지원의지를 과시한 것이 바로 미국의 영향권수호의지다.

토머스 라이트 시카고 세계문제협회의 수석연구원장은 ‘미국은 새로운 중국전략을 찾아야한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 기고에서 “미국은 2010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등과 유대를 강화했으며 오바마정부의 이러한 현 태평양질서유지노력은 올바른 방향이나 로드맵(지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지정학적 협력과 동맹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좋은 후보자이며 한국등 공동의 문제해결에 보다 큰 책임을 지려는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는 지난 8월15일자에 “중국외교도 도광양회(韜光養晦·조심하면서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의 시대에서 돌돌뽀임

(기세 등등하다)의 시대로 전환했다”고 했다. 중국은 올해 요동반도 대련앞바다에서 핵함모도 출현하는 화려한 관함식을 가진데이어 미 핵함모 조지 워싱턴호등의 동해, 남지나해에의 출현에 맞서 7차례나 기동훈련을 한 것은 역시 기세등등했다 하겠다. 또한 함모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흘러내보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세계의 패자되기에 앞서

역사·문화적 유대가 깊다.

냉전체제회귀는 막아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G2양대국 어느쪽과도 지금까지의 우호와 협력을 유지해야한다. 양다리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어느쪽으로 부터도 유감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원숙하고 노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매끄러운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것은 추구하고 다른것은 남겨둔다)외교가 요구된다. 천안함사태에서 처럼 한·미·일과 북·러·중의 구냉전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로 극복해야 한다.

학계와 연구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중관계발전전문가 공동연구회(32명)의 서진영 위원장 (고려대명예교수·동아 8월6일자)은 “한국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 갈 수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 들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소 월간 블러틴 ‘정세와 정책’에서 “동아시아에

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힘의 전환’과 그에 따른 신질서의 형성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인의식’과 ‘평화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대화 재개와 6자회담복귀를 통해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하영선 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는 조선일보 기고 ‘21세기 허생의 중국문제풀기’(8월20일자에서)에서 미·일, 중국, 북한및 아시아국가 등 동아시아 세력망의 3중복합구조를 포용, 제대로 파악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4]

새로운 中國 정책 찾아라

다음 글은 파이낸셜 타임스지 8월 9일자에 기고한 토마스 라이트 시카고 세계문제 협의회 수석 연구원장의 글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중국정책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전제 한다. <편집자>

미국은 지난 70년동안 개방된 민주적 세계질서를 이끌고 확장하려 해왔다. 냉전기간중에는 서방세계에 다원주의를 권장하는 한편 소련과는 오랜 투쟁을 해왔다. 1991년이후에는 빌 클린턴과 부자 부시대통령들이 방법은 달랐지만 세계화와 민주주의확장을 촉진했다.

이제 이 확장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중국은 부유해 지면서도 민주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는

개방시장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어려운 전쟁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국가건설과 민주주의보급에 회의를 갖게했다.

이제 정책수립자들의 큰 문제는 일련의 극적인 지정학적인 변화가운데 미국이 이끌어온 국제질서를 어떻게 지킬것이나 하는 것이다. 신흥국들 특히 중국이 기존질서의 핵심원리들을 무용화하지 않으면서 이 질서에 수용될 수 있겠는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활동도 거기에 맞춰 증감해야 하는가. 오바마행정부는 처음에는 중국을 국제질서에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오은선 등반기록 뜨거운 眞實공방

여성등반가 오은선은 과연 세계 최고 봉 14좌를 여성등반가로서 세계 최초로 등반하는데 성공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은 지난해 5월6일 그녀가 히말라야의 세번째 고봉인 칸첸중가 등반에 성공했다고 발표할 당시부터 세계 등반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그뒤 지난 4월 27일 KBS가 오은선씨의 안나푸르나봉 정복장면을 생중계하면서 14좌 완등성공을 선언, 일시 잠잠해 지는 듯 했다. 이때 모든 우리 언론들은 오씨의 세계 신기록 수립을 대서특필 했었고 이명박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한국의 쾌거라고 오씨를 치하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정부가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오씨에 대한 훈장 수여 보류요청을 받으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SBS는 8월21일밤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를 통해 오씨의 이 의혹에 얽힌 진실은 과연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세계 산악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있다. '정상의 증거는 신만이 아는가,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방영된 프로를 통해 SBS는 오씨가 지난해 5월 6일에 등정에 성공했다는 칸첸중가가 세계등반계의 의혹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은선은 칸첸중가 등정의 증거물로 두장의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사진들이 증거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이프로는 지적하고 있다. 오대장의 사진에는 바위가 나와 있는데 칸첸중가정상에는 바위가 없다는 것이고 있더라도 정상은 눈으로 덮여있어 바위가 사진에 나올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대장과 함께 등반했던 3명의 세르파가운데 1명은 "정상이 맞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명은 침묵하고 있고, 또 다른 한명은 "정상등정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가 공개한 세르파 누루부의 양심선언 동영상에 따르면 누루부는 "여기가 정상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루부는 정상이 아닌곳에서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오대장과 다른 세르파들의 주장이 자신의 의견과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다

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는 부처님을 믿고 있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오대장의 정상등정을 인정하는 세르파 옹추는 "정상에서 전혀 싸운 적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악인들이 세계 최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의문제기 논란 KBS '추적60분' MBC 'PD수첩' 내홍

봉들을 오를때는 증거로 삼기위해 주변 지형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 오거나 정상에 있던 물건을 가져 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물건을 정상에 놓고 옴으로써 정상등정을 증명하는 것이 등반계의 관례라고 한다. 그러나 오대장의 증거는 사진 두장이 전부이며 이 사진들이 등정의 증거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은선대장은 이와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히말라야 등정기록의 권위자로 알려진 홀리여사의 입장도 SBS는 다시 짚고 있다. 홀리여사는 SBS와 만난 자리에서 "오대장이 제시한 사진은 어디에서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일 수가 있다. 근거로 삼을 만한게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홀리여사는 "오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녀는 그곳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수 있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오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정상이 아닐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SBS의 의혹 제기로 오은선씨의 14좌 완등이 과연 진실이냐 하는 점은 또 한차례 전세계 산악계에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SBS는 "이제 오씨가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무거운 짐을 털어 버리기를 바란다"고 주장, 오씨의 칸첸중가 등정이 진실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오씨가

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제작국은 제보 내용을 보도국 사회부에 넘겼고 사회부는 8월13일과 14일 이틀동안 특종 보도한바 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결국 특종보도를 준비하던 추적60분은 소속국장에 의해 아이템이 없어지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8월18일 특보를 통해, 이화섭국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특종을 하고서도 사내에서는 내홍을 겪은 것이다.

한편 MBC도 'PD수첩' 팀이 제작한 '4대강 수심 6 미터의 비밀' 편이 회사 이사회 결정으로 결방됐다가 뒤늦게 방영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회사 내부에서 PD수첩팀의 보도를 반박하는 반론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MBC 공정노조(위원장·이상로)는 8월20일 MBC 내부 인트라넷에 "우리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수도 있습니다"란 충격적인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해 당사자가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할 정도로 첨예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사장이 사전에 시청하지 못한다면, 사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더구나 프로그램을 만든 부서는 광우병 프로를 만든 부서"라고 지적했다. 이글은 이어 4대강과 관련한 프로 제작과 관련해 "4대강은 나쁘다, 대운하는 더 나쁘다"라는 불문율이 (MBC내부에) 있다. MBC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MBC의 자세가 2년전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 확대 방송했던 광우병프로와 다른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편견을 갖는 의사는 환자를 죽게 할수 있다. 즉 우리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KBS와 MBC양사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둘러싼 이와같은 내홍은,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들의 맹렬한 추격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등 방송계의 변화와 무한경쟁을 앞두고 벌어진 것이어서 여의도 방송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4]

KBS와 MBC양사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둘러싼 이와같은 내홍은,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들의 맹렬한 추격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등 방송계의 변화와 무한경쟁을 앞두고 벌어진 것이어서 여의도 방송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4]

6면에서 이어집니다.

중국이 미국과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접근은 바로 그들 자신이 예방코자한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했다.

북경은 금융위기가 자신들의 부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보다 자기주장적이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처는 행정부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줬다.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차관보실이 추진해온 정책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 2010년 미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들과 유대를 강화했다. 또한 이제는 이해및 가치관 보호문제를 놓고 중국과 부딪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근 바다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2009년 남지나해에 대해 영유권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3월 이 지역을 '핵심 이해' 지역이라고 말하고 기동훈련까지 했다. 이 용어는 티베트와 대만에 대한 영유권주장때만 써왔던 말이다.

미국은 이 지역 다른나라들의 지원을 얻어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다자간해

결을 지지하는 외교적 연대를 결성하는 극적인 외교 이니셔티브로 대응했다. 또한 해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태평양지역에서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오바마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들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략적 로드 맵이 없는 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신흥국들을 계속 끌어들이려야 한다. 그러나 중국같은 주요국들이 현세계질서를 저해하고자 하면 현 질서가 외압에 저항,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존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새

로운 지정학적 협력체제와 동맹을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좋은 후보다. 또한 중국등이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해양, 우주, 사이버공간의 자유등 개방의 핵심원칙에 대해 유럽의 지지를 모색해야 한다.. 또 공동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책임을 더 부담하려는 나라, 예를 들면 한국, 일부문제에 있어서는 베트남, 터키 등에 영향력을 더 쥐야한다. 또한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어야 한다. [4]

세계 種子전쟁 자연섭리 파괴 우려

땀 흘리는 여름철의 입맛을 살리는 청양고추는 원래가 우리나라 산(産)이지만 오래전에 종자권이 외국회사에 팔려나가 지금은 청양고추 하나하나에 해외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먹고 있다. 무 배추 참깨 들깨 마늘 파 등의 반찬 거리는 물론 고구마 감자 사과 배의 대부분과 쌀 보리 밀의 상당수도 외국 종자를 사들여 와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는 이미 상당부분 종자주권이 외국에 넘어 가 있는 것이다.

원래 농산물은 그해의 생산물중 가장 튼튼한 것을 골라 씨를 받은 후 이듬해 이를 다시 육종하여 생산종자로 쓴다. 건강한 종자를 받아 그 종자로 생산을 계속해온 이런 자연농사법이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모든 농작물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아남아 지역별 특산물이 되었다. 같은 쌀이라도 경기미가 다르고 김제평야의 쌀이 달랐다.

종자가 지역과 국가를 이동하여 가면 종자가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으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으로 살아남기도 하고 지역적응을 하지 못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꿀배 종자는 미국에 건너가 심겨졌으나 실패로 끝났고 농작물은 아니지만 꿩은 한국전에 참전한 한 병사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간 후 잘 번식하고 있다.

종자권(Seed Property Right)이라는 새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런 자연 질서는 파괴되기 시작했다. 종자과학은 원래 다수확이나 더 맛있는 생산물수확을 위한 우성끼리의 교배 또는 접붙임을 통해 개량종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나 지금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종자를 만들게 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의심할 수 있는 GMO(유전자변이농산물)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수확량이 많은 종류로 만들기도 하고, 보다 맛있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모양이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냉해나 한발에 강한 것을 만들기도 하며 병충해에 강한 종류로 만들기도 하는데 특히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조작된 종자는 독성을 수반해 난리를 일으킨 일도 있었다.

또한 이런 유전자조작 종자는 대부분 종자회사들의 독점사업을 위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할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다. 번식력이 제거된 식품들이 결국에는 인체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까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종자과학이 나노과학수준으로 고급화함으로써 돈과 전문인력이 많이 들어 자연 대기업의 독점체제가 형성되었다. 지금 세계의 종자시장은 몬산토(Monsanto), 두퐁(Dupont), 신젠타(Syngenta)등 10여개회사들이 휘젓고 있다. 성공적인 신품종을 만들기 위해

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들어갈 뿐 아니라 대회사들이 이미 웬만한 종자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미처 갖지 못한 토종을 찾아 성공적인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국이어서 종자개량에 관한 관심은 전통적으로 높았다. 성공적인 종자회사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한국농민들에

時 論



정 일 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청양고추도 美회사에 로열티 지불 土種바탕 우수품종 국내개발 시급

게 잘 알려진 종자회사들인 종묘종자회사, 흥농종자회사 등 한국의 유수한 종자회사들은 1997년 국제금융위기때 거의 모두 대회사들에게 넘어갔다. 이때 청양고추와 같은 한국종자권이 대부분 외국의 대회사로 넘어갔다. 종자회사들의 외국회사 합병과 더불어 이들이 갖고 있던 한국의 토종 종자권이 모두 외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소류, 과일류, 꽃의 60~70%가 국제대기업으로부터 종자를 들여와 생산하고 있다. 현재 종자를 들여오거나 재배를 통해 로열티로 나가는 외화의 액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종자권에 대한 로열티가 강화되는 2012년 이후에는 로열티때문에 농사짓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2012년 1월부터 UPOV(식물신품종협정)을 광범하게 적용할 것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권에 대한 로열티의 적용이 보다 엄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외국회사에 지불해야하는 로열티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종자권이 국제대기업에 의한 독점화가 강화되고 매년 씨를 이들로부터 사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자가 나올 때 우리 품도에 적응하여 우리 것으로 되는 과정이 없어졌다. 우리 토질이 아닌 생소한 외국에서 만들어진 유전자조작종자를 매년 받아와 생산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새 종자가 우리 품도에 적응하여 우리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없다.

신품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고 해마다 종자를 외국회사로부터 사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종자

무인 인도향나무(Indian frankincense tree)도 대회사의 물질특허에 걸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온인도가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럽게 쟁론을 벌이고 있다.

온난화를 막는 지혜

지구 '온난화'란 온실 효과의 결과로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 지구의 평균 지상 기온은 15℃로 인간과 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다. 이 균형적인 기온을 유지하는 데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 즉 '온실가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대류권'(對流圈)의 기온이 상승하여 기후가 '온난화' 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와 수림벌채의 증가 그리고 농업 공업 등 각종 산업 활동의 확대, '프레온가스'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 추세로 가면 온실효과가 더욱 증대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 빙산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급상승하는 등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



김 휴 선

- 본회 회우
- 전 MBC 보도국부장
- 현 KOBACO 공익광고협의회위원

한국은 세계종자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6년 농촌진흥청에 한국농업유전자원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유전자의 발견, 보존, 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종자자원을 많이 외국에 팔아넘기고 말았지만 다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자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발굴되지 않은 토종종자를 더 많이 발굴하여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다. 금년 3월 이후에도 5백여 토종이 농민들로부터 신고 되었다.

한국의 종자전쟁은 일단 국제대기업의 무자비한 공격을 막고 한국인이 선호할 수 있는 우수 농수산물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빛깔 좋고 수확량이 큰 기존의 농업종자를 능가할 수 있는 종자를 한국의 토종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대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종자전쟁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종자회사들이 순전히 이익을 위해 2세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去勢)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새 품종이 그 나라와 지역의 지리와 풍토에 알맞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 종자를 보급하게 된다면 한국은 위대한 종자국으로서의 이름을 날릴 수도 있을 것이다. [K]

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 올라가면 양서류가 멸종하게 되고 2~3℃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경에는 지구 생물의 약 20~30%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한다. 또 이대로 가면 2080년에는 지구 생물 대부분이 멸종위기에 처해,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 하고 있다. 요즘 세계 기상이변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나라도 올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길다. 지난 8월 5일 강릉지방의 기온이 37.1℃를 기록하면서 1911년 강릉지방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구 경북지방 기온이 연일 34~6℃를 오르내리고 있고, 서울도 지난 8월5일 금년들어 최고인 33.8℃를 기록했다고 한다. 7월말부터 시작된 무더위는 8월 중순까지 30℃ 이상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9면으로 이어집니다.

고품격 時調를 만방에 알리자

한국문학중에 국제사회에 내놓을 문학 장르는 시조 뿐 이다. 세계 정형시 중 이탈리아의 소네트, 일본 하이쿠, 중국의 율시, 페르샤의 루바이야트, 인도의 카비르, 한국의 시조 등을 들 수 있다. 시조를 우리만 알고 있지 세계문학사전에도 빠질 만큼 소홀히 한것은 우리 한국문단이나 정부측의 책임이 큰것도 더 말할것이 없다. 일본은 하이쿠 인구가 1천만명이나 되며 세계적으로 하이쿠 쓰기운동을 국가적차원에서 선전하고 권장한다. 작가는 1천만명, 무크지 3천개다. 우리는 바라만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고품격문화 국제 교류로서는 시조 밖에는 없다.

심지어 우리 시조는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무지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 시조 문단은 겨우 6백명정도 이다. 적어도 1만명이 되어도 일본에 비해 시조문학 계승 발전에 모자람이 있다. 뒤늦게 우리도 뜻있는 몇 사람이 모여 한국 시조를 세계에 내놓고 1천년 가까이 신라 향가에서 근원한 훌륭한 시조 알릴때가 왔다.

정부에서도 흥행성향적 문화행사에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다이나몬드 보다 몇십배 가치가 있는 시조 보급이나 이해를 위한 연구서적 발간에는 무관심한 상태이다. 시조의 외국인에 대한 보급은 정부나 로터리클럽이나 유네스코 등 사업으로 맹렬히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평화봉사단원 영어교사로 왔던 데이비드 매간이 미국 하버

드대에서 우리시조를 가르치고 영어로 시조 쓰기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 감사할 따름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동광문화사에서 영문판 한국시조선집이 리처드러트(Richard Rutt)번역으로 발간되었다. 또 일본어판은 혼다 히사시 일본 중견 시인에게 번역의뢰하여 책이 나왔다. 외국인들이



이 용 호

- 본회 회우
-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 시인 · 문학박사

주어진 운율이 있는 구(句)로 되어있는 시형태고 시인들은 오랫동안 시조의 율통성을 유지해 왔다. 중략-현대시조의 언어와 형상은 그 시대의 자유시 언어와 형상에 가깝다. 많은 시조시인들이 서구시가 반세기전 유행하기 전에 상상할수 없었던 생략적인 문법과 이미지의 병치를 사용한

신과 미의식의 흐름이 일본의 와가(和歌)나 또는 하이쿠(俳句)등을 꿰뚫고 있는 시정신과 미의식에 공통의 기반을 갖는다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의 기반이라는 것은 두 나라의 먼 역사로 보아 한시(漢詩)에 기원을 두고 있음은 틀림없는 것이다. 한일 두나라의 시가는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왔고 지리적 풍토와 문화적 풍토속에서 독자적인 시가의 세계 창출에 의해서 생긴 문자 표현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 미의식을 갖는 한일 한시에 가 닿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고시조부터 1962년생 이기동까지 130

편을 보았다. 세종대왕한글창제후작품들을 보았다. 서정시와 서사시의 큰 흐름을 알게 되었다. 전통성과 현재성이 교차하는 곳에서 어떠한 시를 어떠한 노래를 창조할 것인가는 오로지 시인의 인식과 상상력에 관한 일이다.

다. 여기에 현대시조시인과 현대 자유시인과의 구별은 없을 것이다. 지(知)정(情)의(意)로 억제하면서 미래에 계속 구가될 새로운 시를 지향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이 책이 번역될때까지 최승범 교수님께는 말로 다 할수없는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또한 번역본을 주신 한 시인 이용호박사의 열의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혼다씨는 세계는 물론 이웃일본인 까지도 모르는 시조문학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 [4]

문혀있는 세계7대 정형시중의 하나 英文-日語판 발간계기 적극 지원을

우리시조에 큰 관심을 가질리 없다. 고품격 문화교류로서 봉사단체나 정부가 바짝 추켜잡고 책 보내기 운동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 경제 선진국이면서 전통시 하나없이 멸시당해선 말이 안된다. 1970년 본인이 청자, 시조동인으로 활동할 때 무크지 10호로 프린트하여 국제펜대회 때 나누어준바 있으나 정상발간물은 아니다. 러트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조가 한국 현대문학에서 과거의 전통과 직접 연계되는 유일한 형태이다. 회곡, 소설 다른 형태의 시, 수필까지도 급세기 초 이래로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시조는 구성요소가 한국어의 기본적인

다. 결말 그리고 동양문학의 전통적인 상징적 표현이 개인적인 생각들의 결합 및 20세기의 심상과 혼합되어 진정으로 살아 있고 vrea-lidre와 같은 전위적인 시를 만들지만 그것의 문화의 뿌리는 강하게 시조 형태에 남아있다” 고 시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

일본어로 번역한 혼다 히사시는 한국의 아름다운 음운과 리듬은 그 시가 직접 귀로 들어본바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터이다. 그 아름다운 가락을 일본어의 음운과 리듬으로 나타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감히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은 고시조로부터 현대 시조에 이르는 시정

8면에서 이어집니다.

올 여름만도 일사병으로 2명이 죽고 100여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나 사실상 사망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최고 38.6℃를 기록하는 등 연일 34~5℃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지금까지 300여명이 숨졌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러시아에서는 130년만에 최악이라는 폭염과 가뭄으로 산불이 발생해 우리나라 면적의 13배나 되는 임야와 가옥 그리고 옥수수밭 등이 타버렸다. 이로인해 모스크바 시내에는 연일 ‘스모그’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곡물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또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1,700여명이 숨지고 2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올 여름 폭염과 홍수와 산사태로 2,600명이상 숨지고 2,000여명이 실종됐으며, 인도에서도 가뭄과 홍수로 수백명이 숨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폭설로 도시가 마비됐던 미국에서도 요즘 40℃가 넘는 폭염으로 수십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

가 하면 남반구는 한파에 떨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칠레등 여섯개 나라에서는 이미 200여명이 넘게 추위로 숨졌고, 페루정부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홍수 가뭄 그리고 폭설에 한파까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0년동안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했고 급세기말에는 6.4℃나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이른다고 ‘스텐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인류생존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했으며 국내 평균기온 상승률은 세계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금 한반도는 겨울철 지속시간이 22~49일이 단축됐으며,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폭염으로 지난 1994년에서 2005년까지 2,127명이 사망했으며, 2007년도에는 말라리아환자가 2,227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또 이대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애국가를 바꿔야하는 경우가 올지도 모른

다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주로 추운지방에 서식하는 소나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소나무는 멸종하고 열대림이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애국가 중에 ‘남산위에 저 소나무’라는 가사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단 소나무뿐만 아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사과하면 대구 사과로 통했다. 그런데 요즘 대구에서는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다. 점차 온난화로 인해 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포천과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요즘 청계천변 가로수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계절은 속일 수가 없나보다. 오기는 사람이 늦 더위에 익어가는 사과를 보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 오늘 아침 TV뉴에서도 여름철 철새가 69종류나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차츰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와 나무들뿐만이 아니라 바다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추운 바다에 사는 고기와 따뜻한 바다에 사는 고기

들이 자리 바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온 지구가 개발이란 명분아래 삼림은 파괴되고 물은 마르고 대지는 썩어가고 있다. 거기예다가 세계에서 사용하는 연료중 85%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요즘 필자도 글을 쓰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지만 인간은 나무터 이기주의가 앞선다. 자기 편리한대로 산다. 그렇다보니 자동차다 에어컨이다 냉장고다해서 편리한대로 마구 틀어댄다. 이 문명의 이기들이 이제 우리 앞에 괴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인과(因果)-응보(應報)’다. 뒤 늦게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와같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가 되었으며, 세계는 물론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두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4]

“오늘도 새롭게” 좌우명 대로 ‘쿨’

“좌우명요? ‘오늘도 새롭게’입니다.”
宋庸植(78)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늘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열성적으로 산다”고 말한다. 하이 톤 음색에 자신감이 넘친다. 팽팽한 피부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칼, 진초록 넥타이는 팔순을 목전에 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쿨~’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이사장은 1959년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특신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을 거쳐 1980년 언론통폐합이후 이듬해 연합통신 초대 편집국장을 지냈다. 1983년 연합통신 상무를 지낸 뒤 1985년 12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민자당 국가평가위원회 부위원장, 프레스센터이사장(1990~1993년)과 언론중재위원을 역임한 뒤 20년 째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초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송 이사장을 만났다. 차 한잔 마실 겨를도 없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활동 내용을 설명한다.

“우리 연구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통일,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지금까지 160여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열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감정해소에 역점을 두고 연구원을 이끌어 왔다고 한다.

정책토론회 주제가 다양하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세계경제의 불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동북아 정세와 북핵문제’ ‘21세기를 대비한 건설교통 정책방향’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삶과 죽음의 극복’ ‘웰빙웃음과 건강’, ‘골프 테크닉과 멘탈’ 등 삶의 지혜, 건강, 취미생활 등의 주제도 눈길을 끈다.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제주발전 다시 생각한다’, 호남권의 특구 설정 방안’ 등 그 지역의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강사진 또한 관계장관과 교수, 주한 미국대사 등 외교관, CEO와 의사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정책대안 제시...회원 450여명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450여 명 쯤 됩니다. 상임위원은 238명으로 기업인, 국공영기업체장, 경제계 인사가 대부분이죠. 재벌그룹 보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CEO들의 참여가 많은 편입니다. 연구위원은 86명으로 교수 등 학계와 연구기관 인사들이 많고요. 자문위원은 130여 명으로 관계, 언론계, 주요 사회단체 기관인사, 전 현직 장관과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지요.” 1990년 1월 송 이사장 주도로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발기인모임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6>

회우초대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실에서 포즈를 취한 송용식 회우.



지난 1월 27일 서울 하얏트 호텔 및 신년회에서 건배를 하는 송 이사장(왼쪽)과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체신부 장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건국대학교 총장, 김은숙 오병훈(주)ROOT N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회장 초청 '회우초대' (1997년 10월 23일)

通信社입사 要職거처... 법조출입맨 大法判例 '지역정책 연구원' 창설... 20여년간 代案 제시등

을 가졌고, 초창기 12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각축하여 결성했으며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10년이 지나자 회원들이 연로해진 만큼 젊은 회원과 여성회원을 영입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한다. “회원상 호간이나 나이는 회원과 젊은 회원들 사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여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인다. 지난 1월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친교모임도 활발한 것 같은데요?

“하이소셜사교클럽인 셈이지요. 분과 위원회별로 조찬 모임 등을 열어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자주 갖지요. 연간 2~3회 정도 해외연수를 통해 해외정보 산업 문화시설 등을 둘러봅니다.” 골프 모임인 ‘지연회(한국지역정책연구원 약

칭)’는 매월 셋째 주 뉴서울CC에서 호쾌하게 샷을 날리며 건강과 친목을 다진다는 것.

-운영비도 만만찮을 텐데..., 회보는 발행하는지요?

“회비로 운영하여 경비가 빠듯하지만 정부지원은 받지 않고, 정부용역도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엔 정책연구지와 여론분석 자료집을 발간했으나 경비절감차원에서 회원 동정 위주의 소식지만 발간합니다.”

-정책 대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의료복지 등 현황논의 등 의견을 취합하여 학계의 자문을 받은 뒤 해당기관에 전달합니다. 일부 반영되기도 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이나 고맙다는 전화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도 합니다.”

대법판례 단독보도 '송 판례' 별명

-대학 졸업 후 합동통신 입사까지 3년 공백이 있던 데...

“유학을 갈까, 외무고시를 칠까, 망설이다가 언론사시험을 쳤어요. 아나운서도 관심 있었으나 당시 경향신문과 합동통신에 합격하여 어디를 갈까 선배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죠.” 그 선배는 순회 특파원 등 해외취재기회는 통신사가 더 많다고 권해 합동통신에 입사하게 됐다는 것.

-첫 근무 부서인 특신부는?

“해외토픽과 생생한 지구촌 포토뉴스를 다루는 부서로 재미를 느꼈지요.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지만 혁명재판부, 법원 등을 출입하며 사회부기자로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권위

‘쿨~하게’ 산다

회우초대석

송용식

·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 상무
· 제12대 국회의원
· 전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현)

인터뷰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한국경제신문 사장,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이대순 전 장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송용식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 오명고 총장, 김은숙 마이애셋자산운용(주) 회장, 조경자 지원갤러리 관장, 주)ROOT N 회장.



웅진그룹회장 초청 ‘불황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64회 정책토론회 (10월 23일)

判例 보도로 명성 시등 활발한 활동

의식으로 취재장벽이 높던 시절, 대법원판례를 단독 보도하는 횃수가 잦아 ‘송 판례’란 별명을 얻기도 했지요.”

- 가장 기억나는 특종이나 기사는?

“1978년 7월 합동통신 이실(전 경향신문 주필) 기자가 특종을 터트린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은 파장이 무척 컸습니다. 유신정권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라 편집국장으로서 이실 기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우선 피신시켰지요. 그 뒤 청와대 사정수석 등에 연락하여 특혜분양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어요.” 결국 청와대는 순순히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의 조사를 통해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정·관계 고위 공직자 등 모두 650여명이 현대측으로부터 뇌물성 특혜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들도 30여명이나 됐다. “하지만 합동통신 연루자는 1명도 없어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회고한다. “이실 기자가 기자회견회를 수상하는 자리에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참석하여 ‘송 국장, 축하해요’ 인사하기에 ‘통이 큰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인다.

- 요즘 언론의 문제점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 데 언론내부는 오히려 변화에 둔감하다는 느낌이죠. 언론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요.” 선정적인 기사 낱말, 심층 취재 역량 부족, 국민 속에 파고 드는 공통 인자 부족 등을 지적하며 “언론의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언론중재위원 시절에도 느낀 점이지만 확인 안 된 ‘가더라 식 보도’로 오보가 많아 중재위를 노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꼬집는다.

-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실을 다지고 스스로를 돌아 볼 줄 아는 자기 통찰이 필요합니다.” 언론인 후배 뿐 아니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의 젊은 회원들 가운데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의 고비를 맞아 실의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시달릴 때 인생상담을 통해 “오늘의 시련은 소중하다. 오늘을 딛고 일어서라”고 격려하면 ‘힘이 솟고 용기가 생긴다’고 하여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술, 담배 못해도 ‘분위기 달인’

- 정계에 진출하게 된 동기는?

“민정당 전국구 직능단체대표로 12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언론계에서는 신문사 출신 조선일보 최병렬, 방송인 KBS 강용식, 그리고 통신사 출신으로 저가 선정됐지요.”

- 의정활동은 어느 분과위 소속이었나요?

“민정당내에서는 국책평가위원이었고, 국회에서는 재무위에서 활동했어요. 기업 자금지원 안전이 상정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지원 폭을 늘리라고 주장하여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고, 힘이 밀리면 수정안을 제시하여 정치적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시절 역점을 둔 사업은?

“언론기관 사이 경쟁과 반목이 심해 상호 소통이 부족하던 시기였기에 편집인 모임 등 주기적인 회합을 주도했어요. 광고 부서를 신설하여 정부 광고를 직접 제작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제도 보완에 주력했습니다.” 언론인 해외연

斷想

그래도 放送에 희망을...

1년 동안 KBS시청자위원을 지냈다. 나름 보람 있는 1년이였다.

재미있었고 용돈도 쟁겼다. 시청자 위원 의견과 답변들은 가치도 있었지만 엉터리도 몇 개는 섞여 있었던 것 같다.

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는 즐겁고 인간미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때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회의도 갖게 한 세월이었다.

다시 가본 KBS는 규모와 영향력이 무서워졌고 그만큼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새 노조의 출현 등 내부 갈등은 더 심한 듯 보였고 시청률을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딱해 보이기도 했다.

KBS 현판에서 노동조합이 만든 전단을 들여다보는 심뻘 했었다.

KBS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KBS의 주인은 시청자입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머리가 복잡했다. 박수철 명분이 상급하지 않았다.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데 왜? 참여정부시절 청와대가 내건 구호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였다.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생각이 모두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국민인가? 국민이 대통령인가? 헷갈리는 면을 보이기도 했었다. 시청자가 주인이면 사장도 시청자인데 그럼 사장은 주인이 아닌 말인가?

주인이라는 그 시청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가.

우수마발(牛馬勃)의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국민하고는 다른 것인가?

오십백백보로 보인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에 공감하는 이들은 국민이지만 아닌 자는 도깨비 들인 것이다.

시청자를 앞세우면 다종의 눈치를 보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막장성이 민방에 못지않다는 비판이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LA지국장
- 수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막말, 황색 태풍에 휘말린 연예 제작, 섹스 몰입에 황색 광풍이 몰아치는 걸 보고 참 멋있다. 너무너무 신난다고 외치는 이들이 판치는 세상인 것도 같다.

말잔치는 막말이야 먹혀들고 먹혀들면 좋은 것이고 결혼도 임시로하고 멋대로 연습도하는 세태에 정체성은 방향을 잃었다.

지금 방송국(放送國)은 눈치 보기 공화국이다.

요즘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며 오도된 여론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선전이나 선동이 조작하는 여론은 거부하고, 적절하지 않은 인기는 구걸하지 않는 당당하고 의연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

어지러운 세대에서 방송이 여론을 빠르게 이끌고 지도자의 몫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 눈치도 봐선 안 된다. 권력은 물론 시청자의 눈치까지도 말이다.

개체가 뒤흔치고 당당한 방송이 꽤 달라는 것이 소임을 마감하는 늙은 한 방송국 시청자 위원 소망이며 당부다.

신념과 철학이 살아 있는 방송을 만나고 싶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했다. 패각이가 온 나라를 썩히는 갈등 공화국을 방송이 삭혀 발효가 잘된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 주기 바란다.

우리 가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화만사성일 것이다. 불화는 만사를 패망의 길로 이끈다. 방송이 갈등을 삭히고 발효시켜서 방송만사성(放送萬事成)을 이루고) 국화만사성(國和萬事成)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국]

수를 늘리고, 당시 프레스센터 내에 중국요리를 추가하여 식사메뉴 다양화에도 힘썼으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최초로 출입 체크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 무척 바쁘게 사시는 데 건강관리는?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40여 분 하고 나면 몸이 한결 유연해 집니다. 조찬 모임이 있을 때는 오전에,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은 오후에 짬을 내 헬스클럽에서 2시간 안팎 근력강화 운동을 하고 가끔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칩니다” 젊은이 못지 않게 탄탄하다며 발목을 살짝 보여준다.

- 술과 담배는?

“전혀 못합니다. 술은 못 마셔도 잘 놀지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유머는 유머대로 분위기를 잘 맞춰 ‘분위기의 달인’이란 소리를 듣지요”

송 이사장은 중매 결혼한 林秀妍(75)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 2녀를 훌륭하게 키워 자식농사도 잘 지었다. 장남 錫俊(45) 씨는 현대자동차 차장, 장녀 貞旼(43) 씨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차녀 貞倫(40) 씨는 스페인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국]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연을 담은 건강한 기업 마니커



자연과 인간이 꿈꾸는 풍요로운 내일
이것이 곧 마니커의 경영철학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 보다는 소중한 우리의 자연 마니커는 자연의 소중함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합리적 경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까다롭게 생산되는 100% 순수 국내산 닭고기 브랜드 - 마니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자연을 담은 제품을 만듭니다



닭고기는 마니커 ———
주식회사 마니커
<http://www.maniker.co.kr>

활짝 열린 光化門 다시보는 역사

북한산과 관악산을 축으로 하여 건립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근정전 어좌 앞 월대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로 앞 근정문을 통하여 흥례문과 함께 어김없는 일직선상으로 곧음이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와 남산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축으로 삼기 위해 계획적으로 광화문을 틀어 놓은 정문의 각도(북쪽 12.2m 동쪽 13.5m)가 제자리를 잡았음이 한눈으로 느껴진다.

광화문은 조선왕조가 개국한지 4년째인 1395년 법궁(法宮)인 경복궁과 함께 지어졌으며 당초 정 남향의 오문(午門)으로, 태조가 정도전에 명하여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지을 때 정문(正門)으로 명명하였다. 정도전은 고전을 인용하여 명령과 정교(政敎)가 반드시 정문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핀 뒤에 나오므로 참소하는 말이 행해지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며 이 문을 닫아서는 괴이한 말을 하는 부정한 백성을 거절하고 이 문을 열어서는 사방의 어진 이를 오게 할 것이니 이것이 모두 정(正)의 큰 뜻이라 하였다.

조선왕조의 위엄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광화문은 세종 8년(1426) 12월 6일 “빛이 나라 밖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드높은 기상이 서려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광천화일(光天化日)의 준말로 임금의 크나큰 덕이 마치 햇살이 전국 방방곡곡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한다는 뜻의 또 다른 해설도 있다.

궁궐과 함께 지어진 최초의 광화문은 근정전 사정전과 함께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청기와를 얹은 3층 누각으로, 누각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아 시간을 알리고 동시에 새로 생긴 법을 공포하거나 과거시험을 치르는 등 중엄(中嚴)을 경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세종 13년(1431) 광화문이 기울어져 고쳐 지은 후 160년이 지난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함께 소실되기까지 법궁의 정문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

였다. 그 뒤 그 자리에는 정조 때 임시로 새 문을 세우고 구광화문(舊光化門)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았다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광화문은 273년이 지난 고종 2년(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 중건과 함께 다시 세워졌



김관태

- 본회 회우
- 전 한국일보 기자
- 박물관 ‘도슨트’

출목(內三出目), 외부는 제공뿌리를 쇠서로 하고, 내부는 운공(雲工)을 만들었으며 첨차(點遮) 양 측면에는 모두 파련초각(波蓮草刻)을 하였다. 대들보는 고주(高柱)에서 합보형식을 하고 보와 위층 마루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아래위층 처마

권 때 현 위치에 석축 일부를 수리하고 문루를 목재가 아닌 콘크리트 구조로, 원래의 자리 축보다 5도가량 틀어지게 옮겨지었으며 현판 글씨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한글로 썼다. 하지만 새로 복원한 광화문은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처마의 선이 곡선을 이루지 못하고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목조건물의 운치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자 위치도 조선왕조 건국 초기 때의 위치가 아닌 틀어진 위치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마침내 원래의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복원에 앞서 발굴 조사하여 새로 발견한 광화문 안 뜰 동쪽의 협생문(協生門)과 서쪽의 용성문(用成門)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으며 아울러 문 바로 뒤 양쪽에 수직장청(守直將廳)까지 복원, 1865년 고종 때 중건된 후 145년 만에 완전한 옛 모습을 되찾았다.

태종 12년 10월 7일 유사(攸司)에 명하여 종을 주조, 궁궐 문에 달았는데 그 종에는 20년 동안이나 대제학을 지낸 변계량(卞季良)이 종정(鐘鼎)에 다음과 같은 명(銘)을 새겨 광화문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빛나는 성조께서
동토에 나시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비로소 넓은 복을 여셨네
옛적 고려 말기에
정사가 흩어지고 백성이 떠나니
하늘이 우리의 덕을 돌아보아
사람들 마음 돌아감이 있었네
이때에 참소하는 간특함이
그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모해함이 매우 위험하여
화가 조석의 사이에 박두했네
효성스러운 성자가
제능(齊陵)의 여막으로부터 이르러
신기를 한 번 결단하니
참으로 힘하게 막힌 사태가 풀렸네
해가 솟아 오르듯....(후략) [국문]



복원된 광화문

나라의 슬픔 · 아픔 함께한 산증인 북한산-관악산 일직선 각도 복원

으며 현판은 당시 훈련대장으로 영건도감의 제조를 겸직하고 있던 무신(武臣)임태영(任泰瑛)의 글씨이다. 광화문 현판 글씨는 한 때 도화서원인 정학교(丁學敎)가 쓴 것으로 잘못 전하여지기도 하였다.

고종 때 중건된 광화문은 석축기단에 3개의 아치형문(虹漣門)을 두었으며 좌우에는 신하가, 가운데 약간 큰 문은 국왕이 다니는 문이다. 천장에는 주작(朱雀)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문 앞 양쪽에는 한 쌍의 해태가 자리 잡고 있다. 문 위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 지붕을 얹었으며 2층에는 목조문루를 세웠고 1층의 기둥사이에는 개방하였고 2층에는 판문을 달아 열고 닫게 하였다. 두공은 다포식으로 상하층이 모두 외이출목(外二出目), 내삼

은 모두 겹처마이고 지붕의 각 마루에는 취두(鷲頭) 용두(龍頭) 잡상(雜象)을 두었다. 추녀 끝에는 토수(吐首)·용두·鬼頭모양의 장식을 끼웠다.

이 광화문은 조선총독부와 남산의 조선신궁을 축으로 삼아 경복궁의 가림막 역할까지 하도록 조선총독부 청사를 짓고 보니 광화문이 삐딱하게 청사 앞을 가리게 되자 이를 철거하여 훼손(毀散)시켰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문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와 우리나라 언론계의 대 논객 소오 설의식(小梧 薛義植)선생의 철거 규탄으로 1927년 4월에 철거된 지 5개월 뒤인 9월 15일 건춘문(建春門) 북방으로 이전 건립된 후 폐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나마 6·25를 맞아 폭격으로 소실되었다가 1968년 박정희 정

8월의 白頭山...감동과 아쉬움

김 건 이 · 본회 회우 · 전 세계일보사회부장 논설주간

이글거리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천지를 향해 내리 쏘인다. 작열하는 8월의 눈부신 태양이 오히려 싱그러게 느껴진다. 호수 주변에는 푸른 초원과 온갖 방초들이 아름다움을 다투듯 곱게 피어 있다. 산들바람이 방문객들의 땀을 식혀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은 ‘천우신조했다’며 자기가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백두산 천지를 맑은 날에 바라보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일 년에 한 달 가량만 그 아름다운 속살을 내보인다는 천지이기에 사람들은 감탄 하고 또 감탄하는 것이다. 2010년 8월 11일 낮 12시의 일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놓고 인간들은 금을 그어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아귀다툼을 한다.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람과 구름, 산짐승들은 자유롭게 오간다. 천지의 물과 땅도 왜 자기들을 갈라놓았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천지 언덕에는 높이 1m 가량의 국경 경계석을 세워놓고, 한쪽은 ‘中國’이라고 한자로, 반대편은 ‘조선’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다. 북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을 쳐놓았다. 그러나 이날따라 북한군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중국 쪽의 관광객들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기념촬영을 했다.

중국 길림성 정부는 백두산을 개발해 한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이곳 西坡(서 백두산)는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쪽(東坡) 백두산 관광로를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7년부터 중국정부는 개발과 관리권을 연변자치주에서 길림성 정부로 넘기고 북과 외에 남파와 서파 관광코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서 백두산 입구 동네인 ‘송강하’라는 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해 북경, 상해, 광둥 등지의 남쪽 부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이 운영하는 장백 폭포지역의 동굴을 포함한 북과 코스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중국여행사에 직간접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백두산 관광 시즌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관광요금은 성수기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유래 없는 큰 비가 내려 길림성 일대와 압록강 일대가 침수되어 곳곳에 도로가 끊기고, 주택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백두산을 향하는 곳곳에



천지 앞에 선 필자.



허물어진 국내성터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방치된 광개토대왕릉.

주택이 물에 잠긴 모습이었고, 도로마저 끊겨 우회하느라 평소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했다. 8월 20일에도 큰 비가 또 내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지역이 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서파 쪽 백두산 관광은 산문 도시인 송강하(宋江河)에서 시작된다. 송강하 입구에서 천지 행 전용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1시간을 더 올라가면 대형 주차장이 나온다. 여기서 천지까지는 완만한 돌계단

을 따라 걸어서 50분 내외가 소요된다. 해발 2,000m가 넘는 지역부터는 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온통 야생화 고원지대다. 야생화라고 하지만 눈에 띄는 꽃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돌계단 바로 옆에는 새로 나무계단을 만들고 있었다. 돌계단 총수는 정확히 1,217계단. 중국 가이드는 1,340계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세어서 확인했다.

“장백산을 오르면 일생이 평안하다.(登上長白山 一生平安)”

돌계단을 오르기 직전 나무간판에 한자와 영어로 쓰여 있다.

관광버스를 타고 오르면서 백두산 정상 부근에는 두 가지의 신기한 모습이 나타났다. 30분쯤 올랐을까. 안내자가 “왼쪽을 잘 보십시오.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과연 관세음보살이 반듯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였다.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리고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시 안내자가 “자! 이제 백두산 호랑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을 바라보십시오” 했다. 정말로 호랑이가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오른쪽으로 누운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호랑이 모습을 보인 언덕은 북한에 속하는 땅이었다.

집안(輯安) 고구려 유적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라고 말하는 땅은 요녕성(성도 심천·옛 봉천), 흑룡강성(성도 하얼빈), 길림성(성도 장춘) 등 3개성을 말하며 장춘이 중심지다. 만주 지역을 통치했던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북한 길림성 집안현의 현청이 있는 집안에 400여년동안 터를 잡았다. 집안에는 19대 광개토대왕비와 왕릉(호태왕릉)을 비롯해 장군총인 20대 장수왕릉(중국측 주장·장수왕릉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강원도 고성군 바닷가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성(丸都城) 등의 고구려 유적이 남아 있다.

강성했던 고구려의 국력을 말해주는 유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광개토대왕비 외에는 모두 방치된 상태다. 집안 시내 한복판 평지에 있는 국내성은 높이 6m, 둘레 2,686m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높이 2m, 길이 200여m만 허물어진 채로 남아있고 성터 위에는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광개토대왕릉도 내부는 도굴되고,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으며 무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작은 돌들로 꽉 채워져 있었고, 무덤 주변은 잡풀로 덮여 있었다.

중국 측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시작해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왜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고구려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소수민족의 한 역사로만 취급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역사는 강자의 목소리라고 했던가.

동북공정 가운데 가장 웃기는 것은 고구려 성주 양반촌이 당나라를 물리친 안시성을 ‘虎山長城’이라 이름 붙이고, 2008년 이후 큰 길에서 산 정상까지 500m의 미니 만리장성을 만들고는 큰 길가에 ‘萬里長城東端基點’이라는 돌비석을 세워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성의 꼭대기에 올라 압록강과 북한 쪽을 바라보는데, 입장료만 우리 돈 9,000원이다. 백두산의 입장료는 우리 돈 4만원으로 매우 비싼 편이다. [7]

토정 이지함의 애민정신

어느새 가을의 문지방을 넘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 이렇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를 절반을 넘겼다. 다사다난한 2년 반이었다. 이렇게 2010년이 기울고 있으나 서민의 고통지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서민가계의 주름살도 퍼지지 않고 있다.

거리를 배회하는 실업자는 줄어들 줄 모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제정책 당국은 이렇다 할 신통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고위 공무원들, 정쟁(政爭)으로 해를 보내는 국회의원들의 봉급과 세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분의 1정도로 깎아버리고 싶은 것은 나 같은 사람 몇몇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저 서민이 험벗고 굶주리지 않고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위정자가 서민의 고통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도대체 이 나라에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지도자가 있기는 한 것인가.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 : 1517~1578)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가 정말로 '토정비결'을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일세의 기인(奇人異士)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또한 구세제민(救世濟民)의 경륜을 펼친 청백리요, 경제와 과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실학(實學)의 선구자였다.

토정이 당시로서는 다 늙은 56세 나이에 미관말직인 종6

품 포천현감 직에 나선 것은 재물이 탐나서가 아니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에 눈멀어서도 결코 아니었다. 오로지 가난한 백성을 위해 남은 힘이나마 한 번 쏟아놓고 가겠다는 순수한 인간애·동포애의 발로였다.

선조 6년(1573) 토정이 포천에 부임하자 아전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저녁상을 잘 차려 내왔다. 물끄러미 상을 내려다보던 토정이 말했다. "먹을 것이 없구나!" 잘 차린 음식상을 보고 먹을 것이 없다니, 아전들이 다시 상을 차려 올렸으나 여전히 똑같은 소리였다. 토정이 이렇게 타일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지 못하는데도 음식에 절제가 없고, 또 앉아서 편히 먹기를 좋아하니 큰일이다. 나로 말하자면 음식을 상에 담아 먹는 것도 과분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리고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씩만 가져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그가 아산현감에 부임한 것은 선조 11년(1578). 신관사도 토정은 관내를 한 바퀴 돌아보고 거지가 너무 많은 데 놀랐다. 거지뿐 아니라 병자와 노약자도 많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결인청(乞人廳)이란 거지수용소였다. 고을을 거지소굴로 만들려 하자 아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그러자 토정이 이렇게 말했다. "험벗고 굶주린 백성을 따뜻이 보살피는 것이 수령의 본분이다. 내가 결인청을 세우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양민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집과 땅을 갖게 하여 잘 살게 하려는 뜻이다." 그렇게 결인청을 만든 토정은 수용한 결인들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노약자와 병자

는 짚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는 쉬운 일을 시켰고, 젊고 튼튼한 거지들은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다가 팔게 했다. 그밖에 손재주가 있는 자들은 도구를 마련해주고 수공업에 종사토록 했으니, 그야말로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산교육이었다. 또한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에는 거지들을 동원해 모내기·벼베기를 시켰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저축을 하여 자립의 밑천으로 삼도록 했다.

그러니까 토정 이지함은 이미 400여 년이나 앞서서 이 땅에서 잘살기 운동·새생활운동·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선구자였던 셈이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은 그 옛날 토정이 현감으로 재직하던 아산현 관아 소재지. 그가 결인청을 만들고 새마을운동을 실천하던 역사의 현장이다. 영인면사무소 앞뜰에는 사리사육과 담쌍고 살았던 토정의 지극한 애민정신을 기리는 동상과 선정공덕비가 서 있다.

서민은 갈수록 살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노숙자는 늘어가는 판국에 입으로만 국민을, 서민을 위한다고 떠드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토정 선생의 유적을 한 번쯤 찾아가보고, 또 가슴 아리도록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네가 무슨 편집국장이야”

서울신문에서 5년반을 보내고 신아일보로 옮겨가서 얼마나 지났을까.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朴贊(박찬)씨가 경향신문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경향신문은 야당지로서 서울신문 비슷한 여당지로 탈바꿈한 상태였다. 오랜 야당생활에 지쳐 몸부림을 친 모양이었다.

전란 때 차사장이 부산일보 사장을 지낼 때 나는 1년 남짓 부산일보 사회부에 있었다.

그때 편집부국장은 고인이 되신 高興相(고흥상) 선배였고 취재부장은 白鐸基(백탁기)씨였다.

얼마되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나는 인사차 경향신문을 방문했다.

비서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白부국장이 나타났다.

함께 사장실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내일 당장 정준모를 한계단 올려서 발령하라”는 말에 너무 당황했다.

한두달이 지난후 시간이 나서 다시 白부국장을 만났다.

孫連淳(손연순) 편집국장이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험담을 늘어놓았다.

孫국장을 논설위원으로 밀어내고 편집국장이 되고 싶은 눈치였다. 나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되어 “이 난세에 편집국장이 기사하나 잘못으로 南山(남산) 정보부로 불려가서 시달림을 받고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텐데 그런 생각 말고 차라리 중역이 되어 일본이나 자주 왕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말을 던졌다.

차사장과 白부국장은 인척간이었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다. 차사장이 白부국장의 조카사위였다.

며칠뒤 白부국장은 상무이사로 발령이 났다. 그리고는 白상무를 만난적이 없다. 孫국장에게는 내색하지 않았다. 차사장은 관운이 좋아서 문교부장관이 됐다. 白상무는 문교부산하 국정교과서 감사로 옮겨갔다. 차사장은 부산일보 사장에서 물러나자 독학으로 영어공부를 하여 미국 유학을 떠나 우수한 대학을 나온 보기드문 민학도였다.

孫국장과 白부국장과는 악연이 있었다. 부산역전대화재로 민주신보사는 사육은 물론 공장도 모두 전소하

여 사제가 기울어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부산에서 석유사업으로 재력을 쌓은 朴正寬(박정寬)씨가 민주신보를 인수하여 겨우 신문발행을 유지해 나갔다.

白부국장은 차사장에게 밀착, 孫국장을 논설위원으로 밀어내고 편집국장이 됐다.

편집국은 술렁이었다.

논설위원중 洪모씨가 분노하여 아래층 편집국으로 내려가서 국장석에 앉아있는 白국장의 뺨을 두세차례 후려치며 “네가 무슨 편집국장이야”고 호통을 쳤다.

홍 논설위원은 白국장보다 부산상고 10여회 선배였고 孫국장은 동래고보 출신으로 홍 논설위원과는 같은 연배쯤됐다.

홍 논설위원은 세상이 싫어 홀연히 출가, 부산범어사에서 늦깎이 스님이 됐다. 孫국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으로 옮겨갔다.

한성순보때 쓰던
외국명 표기를 아직
도 그대로 쓰고 있
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880년대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표기한 외국명은 여러가지로 표기한
것이 많다. 그것은 당시 중국쪽 신문
의 외래어 표기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
이다.

즉 미국은 合衆國, 花旗國, 亞美利
合衆國, 美利堅合衆國 또는 약자로 米
國 등으로 표기했고 따라서 일본신문
에서는 亞米利加的 약자인 米國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신문들은 해방될
무렵부터 일정한 米國으로 표기하던것
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본과 달리한
다고 美國으로 표기법을 바꾸었다.

1880년대만해도 서구사람들이 중국
에 상륙해서 日報館(신문사)을 설치해
서구의 路綫(로이터) 泰晤士報(타임
스) 등의 電報(통신)를 받아 신문을
만들었으므로 동양에서는 중국쪽신문
뉴스가 제일 빨랐다.

당시 중국 각처에서 발행한 日報館
수를 대략 살펴보면 澳(오스트리아)
文紙가 6개소, 英文紙는 廣州5개소·
香港15개소, 上海26개소, 漢口3개소,

福州4개소, 廈門1개
소, 天津8개소, 煙
台1개소, 北京4개
소, 法(프랑스) 文
紙는 上海5개소, 北
京2개소, 天津2개
소, 德(독일) 文紙
는 上海2개소, 北京
1개소, 俄(아라사)
文報紙는 哈爾濱6
개소, 上海3개소 등
으로 분포되어 있었
다.

이렇게 서구 각국
이 앞다투어 가면서
중국대륙(거의 항
구쪽)에 상륙해서
정치못지않게 신문
전쟁을 벌인것이다. 또 신문들은 자국
어 뿐만 아니라 중국관 신문도 만들어
대민활동을 한 것이다.(中國報字史참
조)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간행물이
라고 볼 수 있는 漢城旬報(1883.10.30



이 선 희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창간)는 발행당시
부터 외래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에는 해외소식을 직
접 통신으로 받지
못하고 주로 중국쪽
신문에 의해서 외국
소식을 게재했다.

이처럼 서구의 전
보가 주로 중국쪽으
로 들어와 그외국어
가 거의 중국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예
를들면 America를
중국의 신문이 亞米
利加로 표기한것을
한성순보에서도 그
대로 썼다. 물론 日
文紙가 직역한 都羅溝無(都羅無, 드
럼) 등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중어표기가 주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래서 日文紙를 인용하는 경우는 한손
더 거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요즘도 국내신문에서 외국명

을 표기할 때 美國,
러시아, 英國, 이라
크, 濠洲, 브라질
등으로 한자로 표기

하다가 또는 현지음을 그대로 표기하
기도 하는데 사실은 1880년대 중국신
문에서 한성순보로 외래어가 들어올때
는 러시아, 이라크, 브라질 등도 俄羅
斯, 伊拉克, 巴西 등으로 표기돼 들어
왔다.

또 America를 중어식 표기로 亞米利
加로 쓰면 중어발음으로는 아메리카란
발음에 근사치가 나온다. 그러나 아메
리카합중국을 美國 또는 우리말로 미
국이라고 쓰면 발음상으로나 의미상으
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만들어 낸
글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외국명 표기통일을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발
전없는 언어생활을 하고 있음을 그대
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다.

앞으로도 계속 일부국명을 옛날 중
어식 표기 그대로 써야할 것인가 아니
면 모든 세계국명을 현지발음대로 통
일시켜야 할것인가를 우리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문]

언론사 社友會 소식

KBS

사우회보 100호 기념 세미나

KBS사우회(회장 김수웅·본회 회우)는
지난 8월 1일자로 지령 100호 사우회보를
발행했다. KBS사우회는 또 사우회보 100
호 발행 기념으로 9월 9 오후 2시 30분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방송 통신 융합시대
의 좋은 방송'을 위한 심의기준 개선에 관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사우회가 단
순한 친목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
적인 방송단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고 있는 증거로 평가 되고있다. 이
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미디어법 개정에 따
라 실시 되고 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품질과 광고와의 한계 등을 밀도 있게 토
의하여 새로운 심의 기준 개선방향을 집중
적으로 논의 한다.

경향신문

총무 이사에 노명수씨

경향신문 사우회 OB산악회(회장 김충
한)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북한
산 밥골 계곡에서 등반을 겸한 단합대회를
가졌다. 지용우 본회 논설위원, 이상호 회
우를 비롯한 10여명의 경향 사우들이 참석
한 이날 산행은 우천 관계로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으나 북한산 입구 한식집 '예
강'에서의 뒤풀이가 그 어느때 보다도 돌
보였다는 후문이다. 경향신문사우회(회장
이형균)는 또 지난 8월 1일자로 회보를 발
행하고 노명수씨를 사우회 총무이사 로 위
촉했다.

국민일보

2기 임원진 개편

국민일보 전직 사우회보임인 '국민미디

어클럽(KMC·회장 함정훈)'은 지난 8월
초 사우회보를 발간했다. 이번 사우회보에
는 국민일보 지면을 빛낸 현역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KMC언론상' 시상
과 국민일보의 '이벤트가 있는 정년퇴임'
등이 소개돼 있다.

한편 제2기 사우회 인사에서 본회 회우
로 임원진에 선임된 회우는 다음과 같다.
고문=김영일, 부회장=이대영 이규섭,
이사=김영진 김종열 이용권

동아일보

산클럽 북한산 등반

동아일보사우회 산 클럽(회장 성낙오·
본보 편집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북한산
탕춘대 능선을 돌아 구기동에 이르는 산행
코스로 건강을 다졌다. 12명의 산우들이
참석한 이날 동우회 산 클럽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 로 만나 산행을 한다.

신아일보

고 장기봉 사주 2주기 추도식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장기효) 회원 40
여명은 지난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고
장기봉 선생(신아일보 창업주) 2주기를 맞
아 서울 정동 소재 신아일보 본관에 마련
된 고인의 흉상 앞에서 4추도식을 가졌다.
(사진아래)



大韓言論 회우 투고 기다립니다

대한언론인회는 매달 발간하는
'대한언론'을 보다 충실한 언론매체
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론 현실을 직시하고 우
리 사회에 밑거름이 되는 원로 언론
인들의 지혜가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옥고가
지면을 더욱 빛낼 것을 기대합니다.
투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원고내용
○ 시사논단 (시론·시평 등)
○ 후배언론인에 귀감이 될수
있는 취재비화

- 생활수기·시·수필 등
- 비장의 사진 또는 자료
- 기타
- ※ 단 시사논단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고 내용을 사전 협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10장 내외
- 3. 마 감 : 매월 20일
- ※ 채택된 원고나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大韓言論人會

‘대한언론’ 등 저술지원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
극)은 2010년 8월 23일 심사회의를 열
고 올 하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출판
지원 대상자로 대한언론인회 회보 등
11명을 선정했다. 저술 출판은 500만
원, 번역 출판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최민영(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성형공화국 - 얼굴 잃은 대한민국
- ▷이경희(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이웃을 생각하는 인재가 미래를
이끈다
- ▷김영철(조선일보 사료연구실 기획
위원) 근대 조선과 식민지 조선의

- 영어 확산 과정
- ▷이훈범(중앙일보 토요섹션팀 부장)
동양의 리더십, 서양의 리더십
- ▷김기태(한겨레21 경제팀 기자)
복지의 혼합경제를 이해하기(번역)
- ▷김선걸(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내 인생을 바꾼 결단의 순간 (공저)
- ▷정재용(연합뉴스 홍콩특파원) 중국
G2를 넘어 세계 최강대국 노린다
- ▷김수현(SBS 미래부 차장) 우리는
지금 TED로 간다
- ▷이종각(전 동아일보 심의팀장) 일
본은 지는가 - 현지에서 본 일본의
쇠약화 현상
- ▷진철수(USABriefing 발행인 겸 편
집인) 기자정신 - 어제와 오늘
- ▷홍원기(대한언론인회 회장)
대한언론 [국문]

언론가 소식

본회 회우등 글쓰기 특강

한국언론진흥재단 中高生 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본회 회우)은 지난 7월 초부터 서울과 경인지역 53개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전직 언론인 글쓰기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인 글쓰기특강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를 통해 논리

적 사고와 표현력을 높여 신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문명호(전 문화일보 논설고문·본회 논설고문) 도준호(본회 이사·전조선일보 논설위원) 이태영(본회 부회장·전 중앙일보 색션국장)등 본회 회우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본회 이태영 부회장이 중고생들에게 글쓰기 특강을 하고있다.

KBS DMB 재난방송 시작

재난재해 주관방송인 KBS는 8월 2일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DMB를 통한 모바일 재난 경보 데이터 방송을 시작했다. DMB를 통한 재난 경보 방송 시스템을 개발 구축한 것은 KBS가 세계방송사 가운데 처음이다.

KBS는 특히 G20 서울 정상회의 주관 방송사로 선정된후 전담조직으로 G20 주관방송단(단장 허진)을 만들었다. KBS는 또 지난 7월 29일 6·2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방송전반을 기록한 2010 지방선거 선거방송백서를 발간했다.

사랑의 리퀘스트 600회 방영

KBS TV는 지난 7월 24일로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600회를 기록했다. KBS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은 1997년 10월 24일 방송이후 14년 동안 5천만여 통의 전화를 받고 성금 697억 원을 모아 4천명의 새 생명을 구했고 789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775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신입공채경쟁률 155대 1

KBS 2010년 신입사원 공채경쟁률이 155대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낸 직종은 아나운서 분야다.

국방일보 6·25 참전기 연재

국방일보는 지난 6월부터 6·25 60주년 특집 기획 기사 중 본회 6·25 참전회우들과 종군 회우의 글을 연재했다. 인기리에 연재된 본회 6·25 참전회우 관련 기사는 60만 현역 국군장병은 물

론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것이 국방일보 취재진의 평가다. 그동안 국방일보에 글을 기고한 회우는 지갑종 지용우 최원각 송두빈 이순기 박기병 이경남 김 집 이해복(본회 고문) 등이다.(이상 게재 순)

신영연구기금 창립 33주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국)은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관훈동 신영기금 회관에서 기금 창립 33주년 기념식과 카테일 소연을 마련한다.

북한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인터넷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선전 게시 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과 국내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8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MBC 기구개편 보직인사

감사실 감사 1부장 이종태, 감사실 감사 2부장 박평옥, 감사실 감사 3부장 한기현, 창사 50주년 기획단부단장 진현숙

매일경제 신문 인사

경제월간지 편집장 한정곤

서울신문 인사

논설위원 실장 오병남, 특임논설위원 황진선 이용원, 문화홍보국장 호남주, 기획사업국장 강동청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집필실 마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6월 28일 프레스센터 13층 도서관(열람실)안에 언론인 집필실을 마련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마련된 언

론인 집필실은 현재 전현직 언론인과 언론학 교수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他界회우 명복을 빕니다

김윤진 원로 회우 언론인장 엄수

김윤진 원로 회우가 노환으로 지난 8월 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1세. 8월 10일 오전 8시 서울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대한언론인회는 8월 9일 오후 4시 홍원기 회장, 이태영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다수가 참석하가운데 추도식을 가졌다.

김윤진 선생은 1919년11월 28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생, 중국 북경 계명학원 법정과를 수료하고 1949년 해방 직후 일



고 김윤진 회우

간 남선경제 신문 취재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놓은 뒤 매일신문 정치부장 대우, 부산특파원을 역임하면서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두루 출입했다. 선생은 또한 1953년부터 62년 5·16 직후까지 대구일보 편집부국장을 지내다 5·16 직후엔 주간 국회 타임스를 창간해 주필 겸 전무와 종합경제지 월간 비즈니스 주간을 역임 하고 언론계를 떠나서는 동아증권 투자 상담고문 직을 맡았다.



김윤진회우 빈소에서 오판통회우가 조사를 읽고 있다. 오른쪽이 홍원기 본회 회장.

弔辭 高 김윤진 선생 영전에

오 판 통 (본회 원로회우·전 영남일보 전무이사)

선생이 오랫동안 투병중이라는 소식은 몇 몇 친지들로부터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타계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생과 나는 1956년 대구일보 재직 시부터 가까이 지내온 사이로 선생이 대구일보 서울분실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무대에서 역동적으로 활약하셨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30여 년 동안 가끔 만나 옛날 얘기를 비롯해 이런 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건강만은 빈틈없이 챙기자고 약속했지만 끝내 먼저 가시니 애통한 마음 이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은 대한언론인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모두들 노익장이 부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정하셨던 선생이 외병 중 회춘하지 못하고 영영 돌아 올수 없는 길을 가시니 애통한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선생은 1919년11월 28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생하시어 중국 북경 계명학원 법정과를 수료하시는 등 일찍이 현대 학문에 남다른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선생이 언론계에 투신 한 것은 1949년 해방 직후 일간 남선경제 신문 취재부 기자가 시초였고 이 신문이 뒤에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정치부장

대우로, 부산특파원으로,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두루 출입했고 1953년부터 62년 5·16 직후까지 대구일보 편집부 국장으로 활약하시던 때 나와도 교분이 두터웠지만 동료 선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늘 자상한 마음씨로 선생을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생각해 보니 선생은 타고난 언론인이었습니다. 5·16 직후 주간 국회 타임스를 창간하시어 주필 겸 전무로 두각을 나타내셨고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종합경제지 월간 비즈니스 주간을 역임하신 일도 선생의 탁월한 경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경제 관련 지식은 동아증권 투자 상담고문으로 계시면서 증권업계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평생 언론 외길을 걸어 오시면서 선생이 이 나라 자유 언론 창달에 기여하신 공로는 우리 후진들에게 억만금을 주어도 살수 없는 값진 교훈을 남겼다 할 것입니다. 원로 회우로서 후배들을 남달리 사랑하셨던 선생의 값진 삶은 우리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후고의 염려를 훌훌 떨쳐 버리시고 모든 번뇌도 아픔도 없는 저승에서 부디 영생극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卍

회우동정

(가나다순)

사우회보 지령 100호 기념 대담



김수웅 회우(KBS사우회 회장)= KBS 사우회보 지령 100호 기념으로 최창봉(본회 명예회원·KBS 초대회장)과 대담. 그 내용을 사우회보 3면에 게재.

업무 협의차 뉴욕 출국



김진섭 원로위원장=8월 25일 업무협의차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경유 뉴욕행 출국, 9월 25일경 귀국 예정.

‘대북 첩보작전’ 수행 강연



이세한 원로회우= 8월 12일, KBS TV 주선으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 하고 현역장병들에게 6·25 전쟁 당시 공군 특무대에서 대북 첩보 작전을 수행한 경험담을 강연.

‘저널리즘의 이론과 실제’ 특강



제재형 본회 고문= ①지난 8월 23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열린 한국기독교미디어진흥협회 주최 데일리타임스 기자양성 세미나에서 ‘저널리즘의 이론과 실제’ 주제로 특강 ②충신교회 장로인 제 회우는 8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국가정책성회북 국민연합 주최 한상렬 목사(보안법 위반·구속중) 북한망동 규탄집회 및 공동기자회견에 기독교 대표로 참석.

교토 귀무덤 위령제 참가



천상기 회우(월드그린 환경연합 상임고문)= 지난 8월 11일 광복65주년을 맞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미미즈카(耳塚·귀무덤)위령제에 참석. 교토의 귀무덤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인 12만여명의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다. 왜군은 전리품으로 무거운 머리 대신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인 뒤 일본으로 가져갔다.

▶ 회우기고 활동 ◀

박찬호 회우(경제평론가) : ‘민관 일체로 그린 산업육성’(통일신문 8월 9일자 경제이야기)

김승웅 회우(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 ‘단 하루를 하더라도 아무지개 해야’-체험적 특파원론(신문과 방송 8월호)

김윤곤 본보 논설위원(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월드컵 모바일 호의 뉴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다’(신문과 방송 8월호)

박경석 회우(전국회의원) : ‘대판성을 보며 김정일-정은 승계를 생각한다’(한정 8월호)

박석흥 편집위원(전문화일보 편집국 대우) : 세계15위 국가와 평내고 싶은 나라(대전일보 8월 23일자 22면 박석흥 세상보기)

박 실 본회 이사(전 국회의원) : ‘편지한장으로 넘긴 작전권’(한정 8월호)

송호빈 본회 감사(전 한국일보 논설

위원) ‘세종시 원안으로 갈 수밖에’(경제풍월 8월호)

여영무 본보논설위원(뉴스앤피플 대표) ‘중국 품속의 푸들인가’(경제풍월 8월호)

유재철 회우(전 세계일보주필) : ‘출구전략 시동은 길었지만’(한정 8월호)

이두석 회우(전 세계일보주필) : 친북좌파 집권 막자(경제풍월 8월호)

정운중 본회 상임이사 : ‘이달의 남북논조’(북한연구소 발행 북한지 매월 연재 중)

정진석 본회 명예회우(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 ‘한일합병 100년에 돌아보는 언론-언론과 언론인의 수난사’(방송기자 저널 8월호)

제재형 본회 고문 : ‘4대강은 국민의 생명줄이다’(자유대한신문 8월 25일자 시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대 교우 회보 8월 1일자)

▶ 주소·전화번호 변경 ◀

★ 박진서 회우 = ☎ 010-5477-2318

★ 손기상 회우 = 경기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 효자촌 미래타운 603동 701호 (우463-7800) ☎ 031-703-1288

★ 이시현 회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9-5 (11호실) (우 135-935)

★ 이태영 부회장=자택 전화 ☎ 02-355-7228

★ 임응식 회우 = 서울 강동구 상일동 164 주공아파트 407동 303호

★ 정용석 회우 =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 더 헤리티지 109-105 (우 463-869) ☎ 031-712-7126 팩스 031-712-7164

★ 최신희 회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6단지 608동 501호 (우 410-756) ☎ 031-818-7274

★ 최의호 회우 =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2번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121동 1008호 (우 122-200) ☎ 02- 355-5540



이명동 회우 ‘제비꽃 특별사진가상’

한국, 진흥, 경기, 영남저축은행과 문화재단인 한국사진은행은 광복절 65주년을 기념하여 원로 사진작가 이명동 본회 회우(90세·사진)에게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비꽃 특별 사진가상’과 부상 1천만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명동 원로 회우는 1950년 종군 기자로 참전하여 육국본부 주최 전투사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52년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1963년 동아일보 사진부 부장을 역임하

였고,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보도사진 강의를 하였으며, 1999년 ‘이명동 사진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사진문화발전에 공헌이 큰 사진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한국사진은행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988년 현대사진문화상 본상,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문화훈장인 옥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는 한국 사진계의 산증인이다. [국문]

▶ 회비 내신분 ◀

2010년

고귀남 고수균 고덕환 구건서 김윤석 김광섭 김무중 김철진 김흥기 안성열 (2011포함) 양성목 유성렬 이재승 이종문(08.09포함) 이종식 은종일 이경남

(09포함) 성병욱 장석훈 장종덕(09포함) 최의호(09포함) 한기호(09포함) 현준건

2009년

이종석 김종열

9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1일 박석흥 이호계 정기백
2일 백인호 설임윤 안홍열 정범태
3일 김지용
4일 현원복
5일 박준구
6일 고귀남
7일 안중화 이용권
9일 김충기
10일 이배영 최경호
11일 박문송 한동희 이형균
12일 강성구
13일 유자호 윤용호
14일 김광삼
15일 김양섭 황원갑

16일 이환의
17일 김휴선 백일진 오판룡
18일 박현태 신현구 홍성혁
19일 권대웅
20일 김 철 안평선 여구만 호현찬
22일 김영범
23일 고수균
24일 이성춘 허경구
25일 김양삼 정연춘
27일 고수웅 민 기 정구호
28일 김종범 조관희
29일 김영일

▶ 회우 경조사 ◀

결혼

★ 전의식 회우 = 9월 4일(토) 낮 12시 서울 로얄호텔(명동) 2층 로얄 볼룸에서 차남(진환) 결혼

부음

★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모친상 = 8월 23일, 발인 8월 25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 정서구 회우 빙모상 = 8월 27일 오전 9시 40분, 발인 8월 30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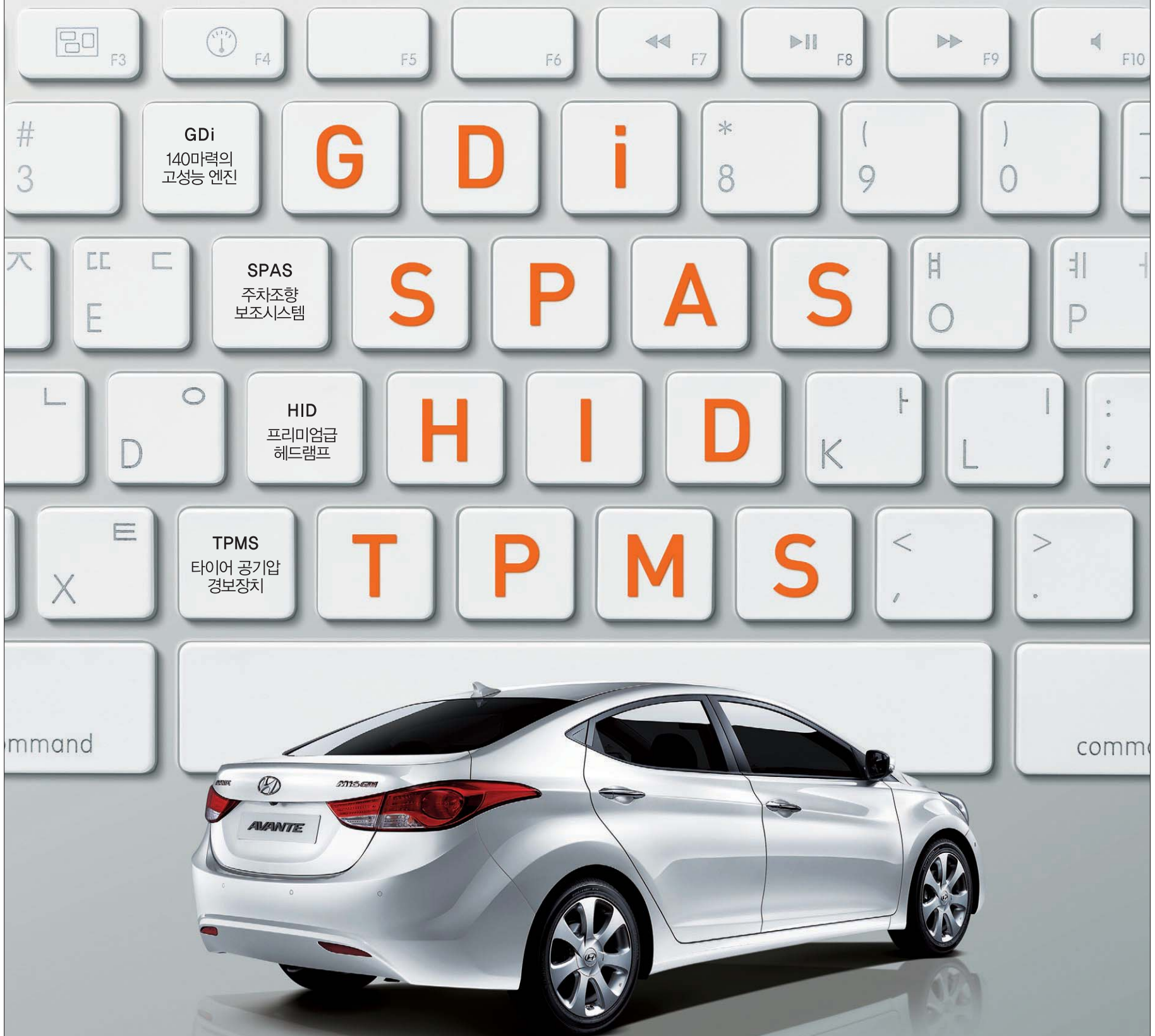
▶ 바로잡습니다 ◀

지난 제293호 5면 “신문 존립근거 ‘팩트’를 훼손말라”(특별기고 권도홍)의 글중 (1) ‘대매체시대’는 ‘다매체시대’ (2) 일본의 최고재(最高裁)는 (最高裁) (3) ‘설’(設)도 있었다’는 (說) (4) ‘깊이’는 ‘길이’의 잘못(誤打)이었기에 고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반떼의 알파벳들로 인해 세상의 중형차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EggMon, Scary 등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세상에 없던 아반떼의 비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vante.hyund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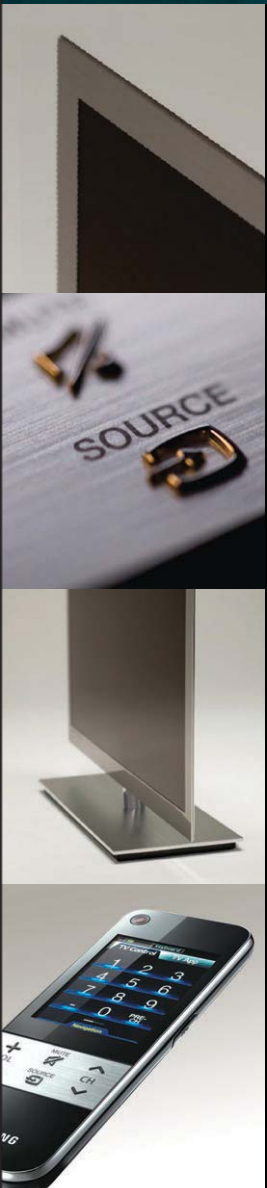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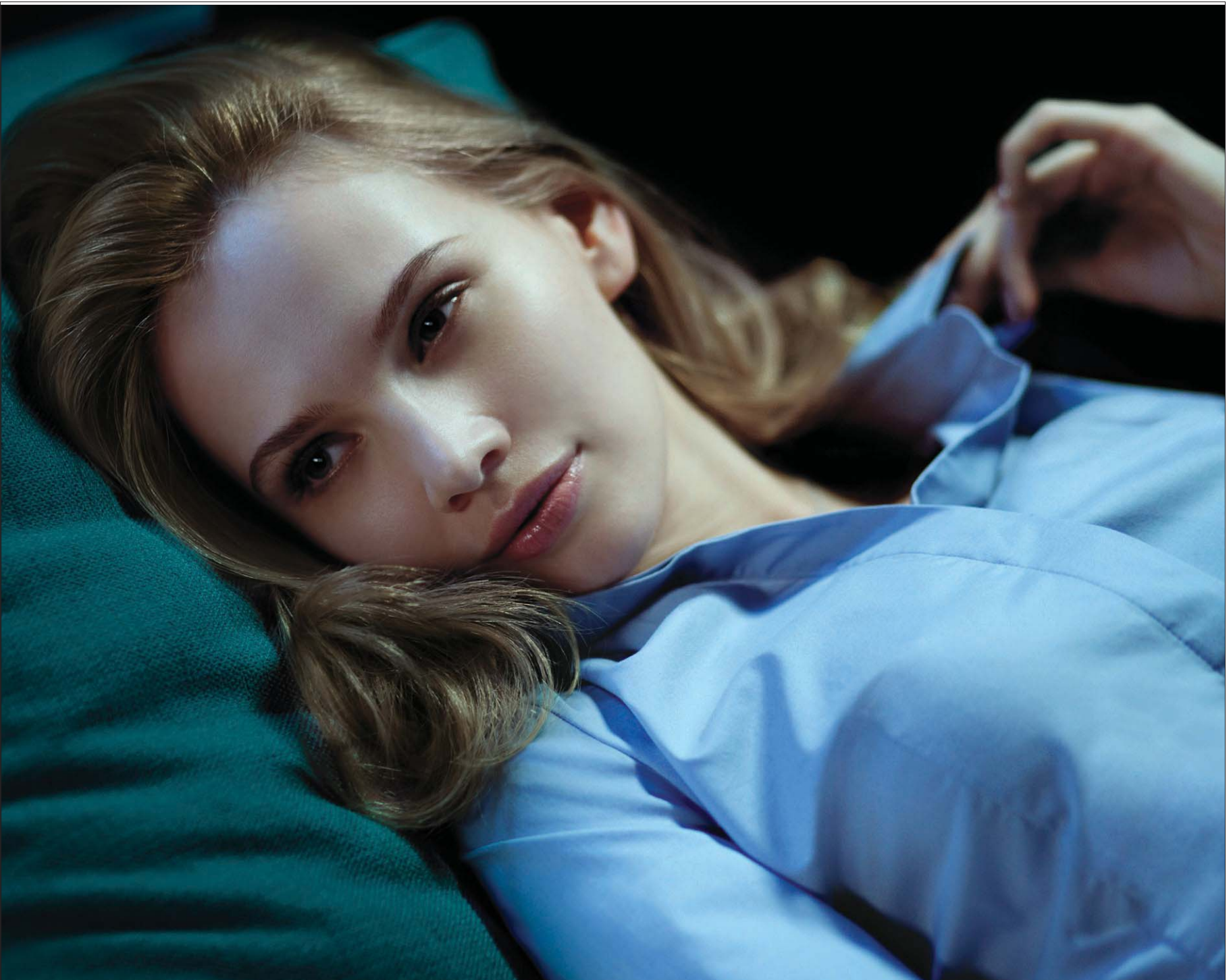
세상에 없던 중형 Compact
AVANTE

www.hyundai.com

신형아반떼 시승이벤트 지금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신형 아반떼 경품 응모 및 시승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시승 및 계약문의는 가까운 지점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세요

■ 구입 문의전화 1588-0550 휴대전화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고객센터 및 긴급봉사단 원콜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1.6 GDI : 17.5/16.5km/ℓ / CO₂배출량 : 134/142g/km / 배기량 : 1,591cc / 공차중량 : 1160(1190kg) / 수동6단(1190kg)자동6단(119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미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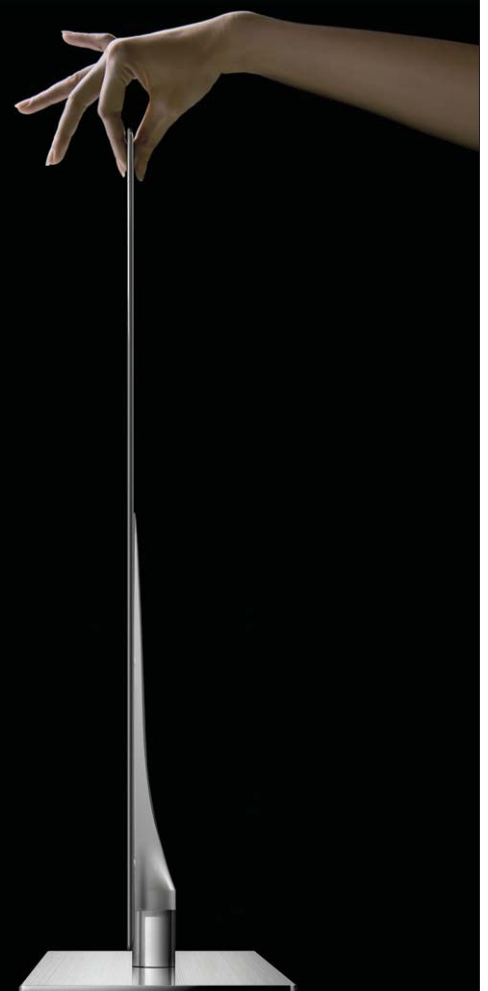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7.98mm 슬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Technology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디자인

오직 삼성 파브 9000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치
The Most Watched TV

Samsung **P9000** LED 9000



삼성전자 **SAMSUNG**